

## 김수경(金壽卿)의 조선어 연구와 일본

— 식민지, 해방, 일북 —

이타가키 류타 (板垣竜太)

金壽卿의 朝鮮語研究と日本 — 植民地, 解放, 越北 —

### 日本語要旨

本稿は、日本の植民地下で知識人として自己形成した金壽卿(1918-2000)の足跡を追うとともに、その延長線上で、1945～1950年の研究者としての歩みを描き出そうとするものである。

1では、1945年までの金壽卿の経歴を、可能なかぎり詳細に検討した。1.1では、金壽卿の父である金瑄得(1896-1950)の経歴を中心として家庭環境を描き出した。判事から弁護士へと転身した父は、地域の教育事業に関与するほど教育に対して熱心であったこと、判事の時代に独立運動に接していたことなどを明らかにした。1.2では、金壽卿の群山中学校時代(1930-34)、京城帝国大学予科時代(1934-37)、京城帝国大学法文学部時代(1937-40)について論じた。法文学部哲学科哲学専攻への進学にあたっては小林英夫のアドバイスがあったこと、哲学科でヘーゲルなどを研究しながらも小林から言語学の手ほどきを受けていたことなどを述べた。1.3では、1940-45年の時期の金壽卿について検討した。1940年に東京帝国大学文学部の大学院(言語学講座)に「朝鮮語の比較言語学的研究」の課題で入学したが、1943年にはソウルへと戻ってしまった。この背景には朝鮮人学徒出陣があったと考えられると論じた。1944年より日本の敗戦まで京城帝国大学法文学部朝鮮語学研究室の嘱託をつとめた。

2では、1945年までの金壽卿の言語学研究について検討した。2.1では、まず金壽卿の語学能力について整理したが、1945年までに、少なくともインド・ヨーロッパ諸語の古典語(ギリシア語、ラテン語、サンスクリット)と現代語(英語、ドイツ語、フランス語、ロシア語、イタリア語、スペイン語、ポルトガル語)、東アジアの古典語たる漢文と諸言語(朝鮮語、日本語、中国語、モンゴル語)を習得していたと考えられる。次に、社会主義との関係については、間接的な証拠しかないことを述べた。2.2では、初期の金壽卿言語学について、言語理論への志向性と、史的言語学への志向性の2つの方向で把握した。前者については、ソシュールをはじめとした構造言語学をかなり深く学んでいたことについて論じた。後者については、クーラン『朝鮮書誌』の翻訳作業を進めていたほか、京城帝大にある「老乞大」の諸板本を比較対照し系統を解明する堅実な書誌研究をおこなっていたことを明らかにした。

3では、1945～50年の金壽卿の研究活動を検討した。3.1では、越北するまでの約1年間を扱った。金壽卿は京城大学自治委員会法文学部委員として活動した後、京城経済専門学校などで教鞭をとった。また、震檀学会の再発足時からの常任委員となり、済州島調査などをおこなった。平壤で計画されていた総合大学の創立にともなって、委

嘱をうけた金壽卿は1946年8月17日晩に38度線をこえて越北した。3.2では、越北から1950年までの経歴をまとめた。金壽卿は1946年に金日成綜合大学文学部教員として任命され、図書館長も兼務した。朝鮮語文研究会が1947年に発足すると、その主力メンバーとして活躍した。3.3では、この時期の金壽卿言語学について整理した。この時期は新たに規範文法をつくる作業に尽力していたが、そのなかでも一般言語学理論への志向性と史的言語学への志向性は続いていた。まず一般言語学理論については、まず活発にソ連の言語学を吸収、紹介していた。当時、ソ連の言語学の主流であったN.Ya. マルとその学派を「新言語理論」として紹介はしていた一方で、「ヤフェト理論」については距離を置いていたと見られること、ソ連で批判されていた構造言語学的な考え方も持続していたことを明らかにした。史的言語学については、訓民正音成立期の15世紀中葉における朝鮮語に関する共時的言語学とでもいい得る研究を発表していた。と同時に、そのような朝鮮語史を現代の綴字法の確立を中心とした規範文法構築へと結びつけていた。

以上のように、金壽卿言語学は、単純に日本の朝鮮語学の影響といった観点ではとらえきれないスケールを有していた。金壽卿にとっての「日本」とは、むしろ植民地化と戦争、そして解放という大状況において影響を及ぼす存在だったというべきであろう。

## 머 리 말

김수경(金壽卿)을 주인공으로 한 리규춘의 소설 『삶의 메부리』(1996년)는 일본의 식민지 시기 및 미군정하의 남조선에서 살았을 때의 김수경을 ‘식민지 지식인’이라 칭하고 있다.<sup>1)</sup> ‘장편실화’로 불린 이 책은 전체적으로는 창작적 색채가 강하지만 김수경이 살아 있을 때 발표되었으며 어느 정도 본인을 취재하고 쓴 작품이라 생각된다. 단 ‘식민지 지식인’ 김수경이 리얼하게 묘사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우며 월북 후의 행적도 단순화되었고 과장되어 있다.

근본적으로 ‘식민지 지식인’이란 무엇인가. 이민족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나날이 동화주의적 압력이 강해지며 심지어 전시 동원까지 자행되던 시대에 고등교육을 받고 언어학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러한 식민지 상황으로부터의 ‘해방’이란 무엇이었는가. 분단, 혁명과 건국, 전쟁, 상황이 이렇게 어지럽게 변화해 가는 와중에 어떻게 조선어학을 구축해 갔을까.

본 논문은 일본의 식민지에서 지식인으로 자아를 형성한 김수경의 행적을 좇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1945년 이후 연구자로서의 삶을 새로이 그려내는 것이다. 김수경의 업적에 대해서는 최경봉(崔炅鳳)의 선구적 연구에서 총괄적으로 검토되었으나,<sup>2)</sup> 1945년 이전의 경력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점이 많다. 우선 본 논문의 전반부(1, 2)에서는 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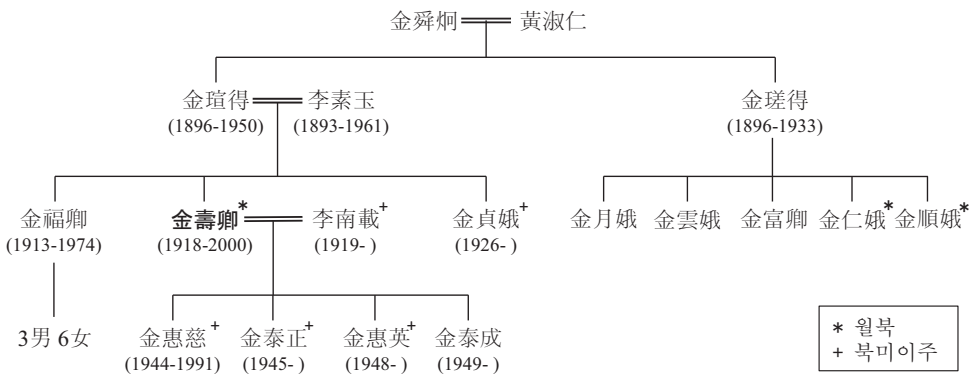
와 유족의 증언 등 자료에 근거하여 1945년 이전의 김수경이 걸은 길을 가능한 한 밝혀내려 한다. 그리고 본 논문의 후반부(3)에서는 1945년 이후의 김수경의 행적을 탈식민지화와 분단의 역사적 맥락에 다시 자리매김하여 새로이 분석해 보겠다. 단 본 논문은 분량의 제약 및 다른 논문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한국전쟁 이전의 연구까지를 다루기로 하였다. 그 이후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를 빌리고자 한다.

## 1 언어학자가 되다

### 1.1 가정환경

김수경은 1918년 5월 1일 동해안에 위치한 강원도 통천군의 중심지인 통천면 서리(현재는 휴전선 북쪽)에서 아버지 김선득(金瑄得, 1896-1950)과 어머니 이소옥(李素玉, 1893-1961) 사이에서 태어났다(그림1). 형제로는 형 김복경(金福卿, 1913-1974)과 여동생 김정아(金貞娥, 1926-)가 있다. 경주 김씨의 장군공파인데 사족(양반)과 서리(향리) 등 지배계층이 아니라 서민 집안이었던 듯하다. 김선득의 경력은 김수경의 사회적 배경을 알기 위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래에 간결하게 정리해 두었다.

그림1 김수경의 가계도



김선득에게는 쌍둥이 동생 김차득(金瑳得, 1896-1933)이 있었는데 이른바 ‘유복자’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어머니 황숙인(黃淑仁)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길러 김선득을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양갓집 규수인 이소옥과 결혼시켰다. 김선득은 초등학교 졸업 후 강원도내에 있는 춘천공립농업학교에 진학하여 졸업(1915년 3월) 후 서울의 경성전수학교(京城專修學校)에 진학했다.<sup>3)</sup> 경성전수학교는 ‘한국병합’ 전부터 있었

던 ‘법학교’를 1911년에 개칭한 법률전문학교로 “공사의 업무에 종사”할 조선인을 양성하는 관립학교였다.<sup>4)</sup> 1918년 3월에 이 학교를 졸업하고 전라북도 지방재판소의 정읍지청에서 관입관 견습기간을 거쳐 같은 해 10월에 정읍지청 서기 겸임 통역생(관입관)으로 임용되었다.<sup>5)</sup> 재판소에서 실무경험을 쌓은 후 광주지방법원 경성법무국에서 조선인 판사 시험에 합격하여<sup>6)</sup> 1921년 9월에 조선총독부 판사(고등관)로 승진하여 전라북도 향만도시인 군산의 지청 판사로 임용되었다.<sup>7)</sup> 원래 유복한 집안도 아니고 조선시대 이래 문인 집안이었던 것도 아니었기에 신지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식민지에서는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던 ‘입신출세’ 코스를 탄 보기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김선득은 그 후 1923년 10월 조선북부 국경도시인 신의주의 지방법원 판사가 되었다. 그러나 1925년 6월에 판사직을 사임하게 되었다. 유족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독립운동가에게 유죄판결을 내려야 하는 입장이 괴로워 사직했다고 한다. 실제로 1919년 3·1운동 이후 독립운동을 하는 여러 비밀결사가 한반도 안팎에서 왕성한 무장투쟁을 전개하고 있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김선득은 그중 천마산부대로 불리던 부대를 이끌던 최시흥(崔時興), 한반도 서북부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벽창의용단의 양승우(楊承雨)에게 내려진 사형판결에 판사로 관여하였다.<sup>8)</sup> 재판장이 일본인이었다고는 해도 배석판사의 한 사람으로 판결에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었던 자신의 입장이 괴로웠을 것이다.

판사를 그만둔 김선득은 1925년 8월에 군산에서 변호사로 개업했다.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으나 군산에서는 다양한 활동에 관여했다. 노동 단체를 망라한 군산노동연맹의 고문, “純소한 朝鮮文藝를 研究”하기 위한 군산문우회 결성과 회장 취임, 군산유아원 설립과 원장취임 등이다.<sup>9)</sup> 기소된 김제의 청년회 회원의 변호를 무료로 맡거나 이리의 재만동포옹호회사건 변호를 맡기도 했다.<sup>10)</sup> 어떤 의미로는 신의주에서 판사로 지냈을 때의 속죄를 했다고도 생각된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 일본인이 많이 사는 군산에서 김선득은 조선인으로서 몇 안 되는 유력자가 되었다.<sup>11)</sup>

하지만 김선득은 마침 김수경이 경성제대에 진학한 해인 1934년에 군산을 떠나 통천으로 귀향했다. 고향의 모든 집안일을 맡고 있었던 동생 김차득이 이 해에 사망했기 때문이다.<sup>12)</sup> 김선득은 동생이 하던 주류양조장 ‘동선(東鮮)’의 경영을 이어받아 1934년 10월에 합명회사로 만들었다.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어업 사업도 전개했다.<sup>13)</sup> 그리하여 1936년쯤에는 연수입이 5천여 원이나 되는 상당히 유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sup>14)</sup> 그리고 동생이 힘을 쏟던 무산(無産)아동을 위한 학교인 금주학원의 원장을 맡아 운영하며 유지하고 있었다.<sup>15)</sup> 그 외에 통천상공협회 회장, 통천어업조합 조합장 등 이곳에서도 지역의 명사로 활동했다.<sup>16)</sup>

이상 1945년 이전 김수경의 가정환경에 대해 아버지 김선득의 경력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김수경의 배경으로 중요한 몇 가지를 든다면 우선 아버지가 학교 교육을 통해 스스로의 지위를 획득했다는 점, 그러기 위해 교육에 대한 투자에 상당히 열심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점, 그것도 본인이나 가족뿐 아니라 무산아동까지 포함한 교육에 대한 열정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 이러한 활동을 뒷받침할 만한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 통역생으로서 두 언어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점, 조선문예에 대한 이해도 있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아버지가 판사였을 때 민족독립운동에 접하거나 변호사로서 지역의 청년운동을 지원한 것 또한 어린 시절의 김수경의 중요한 배경으로 새겨 두어야 할 것이다.

## 1.2 경성제국대학

김수경은 어렸을 때 고향인 통천을 떠나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곁으로 옮겨 살았다. 보통학교(조선인 아이들이 다니는 소학교)에는 신의주에서 입학했다. 그 후 군산공립보통학교로 전학(1925년 여름), 군산공립중학교(1930년 입학)를 거쳐 1934년에 경성제국대학 예과에 입학하게 된다. 그 무렵 보통학교는 일반적으로 6년제, 중등학교는 5년제였다. 따라서 만 6세에 보통학교에 입학해 수업 연수대로 진학했을 경우 대학예과 입학 시에 만 17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1918년 5월생인 김수경이 예과에 입학한 것은 1934년 4월로, 아직 만 15세였으니 보통의 경우보다 2년이나 빠르다. 이는 보통학교와 중학교에서 1년씩 이른바 ‘월반’을 했기 때문이다. 보통학교 시절에 대한 구체적 사실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유족들은 1년 일찍 입학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하지만 ‘보통학교규정’에는 4월 1일 시점에서 만 6세 미만인 경우 해당 연도에 입학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다. 규정에 상관없이 1년 일찍 1924년에 입학하여 6년에 졸업했거나 아니면 1925년에 입학해서 “학업 우수 및 신체발육이 충분”하다고 간주되어 5년 만에 졸업했거나 둘 중 하나이다. 그리고 ‘대학령’에는 중학교 4년을 수료한 자는 수업연한 3년의 대학예과에 입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흔히들 ‘사수(四修)’라 불렀다. 어쨌든 김수경의 성적이 대단히 우수했음은 분명하다.

군산중학교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겠다. 당시 “국어를 상용하는 자” 즉 주로 일본인 학생은 ‘중학교’(조선어는 선택과목), “국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 즉 주로 조선인 학생은 ‘고등보통학교’(조선어가 필수과목)로 학교체계가 나뉘어 있었다. 군산중학교는 원래 일본인 독지가의 기부로 1923년에 세워진,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학교였고 전라북도에서 유일한 중학교였다. 한편 총독부의 중등, 고등교육 억제정책의 결과 군산에는 조선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등보통교육시설이 없었으며 고등보통학교에 진학하려면 40킬로미터 떨어진 전주까지 통학해야 했다. 이에 1928년 군산중학교가 전라북도로 이관됨에 따라 조선인도 3분의 1 정도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진정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으나<sup>17)</sup> 결실을 맺지 못하고 1928, 29년 매해 서너 명의 조선인 학생이 진학하는 것에 그쳤다고 한다.<sup>18)</sup> 김수경이 입학한 1930년도에는 학급이 증설되기는 했지만<sup>19)</sup> 1931년도 전교생 중 일본인 314명, 조선인 32명(9.2%), 1933년도에는 일본인 383명, 조선인 47명(10.9%) 정도였다.<sup>20)</sup> 유족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 속에는 졸업 전 군산중학교의 조선인 학생들만 학년에 상관 없이 다 함께 기념촬영을 한 사진이 있는데,<sup>21)</sup> 그 사진에서는 조선인이 수적으로도 소수였던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사이의 민족적 연대의식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학교에 김수경은 뛰어 들었던 것이다.

군산중학교를 졸업한 김수경은 1934년 4월 경성제국대학 예과에 입학했다. 성대(경성제대의 약칭)는 마침 1934년 입학생들부터 예과의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그리고 그때까지 문과 입학자를 문과A(법학계)와 문과B(문학계)로 나누던 것을 제1외국어가 영어인 문과 갑(甲)조와 독일어인 문과 을(乙)조로 나누는 것으로 바꾸었다. 다른 제국대학 및 고등학교에서도 함께 실시된 개혁이었다.<sup>22)</sup> 김수경은 문과 갑조에 예과 제11기생으로 입학했다. 동기생 중에는 훗날 월북하는 김석형(金錫亨, 사학), 신구현(申龜鉉, 문학), 정해진(丁海珍, 철학), 이명선(李明善, 문학) 등이 있었다.<sup>23)</sup>

1934년도 예과 입학생들의 커리큘럼은 표 1과 같다. 일반교양 과목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어학 관련 과목이 눈에 띈다. 김수경은 예과를 마칠 때까지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를 다 배웠다.<sup>24)</sup> 어학은 그 후의 김수경에게 아주 중요한 무기가 되므로 다음 장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표1 경성제국대학예과 커리큘럼(1934년)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수 신	1	1	1
국어및한문	5	5	6
제 1 의 국 어	10	9	9
제 2 의 국 어	4	4	4
역 사	3	5	4
지 리	2	-	-
철 학 개 설	-	-	3
심 리 및 논 리	-	2	2
법 제 및 경제	-	2	2
수 학	3	-	-
자 연 과 학	2	3	-
체 조	3	3	3
합 계	33	34	34

(비고)숫자는 일주일 동안의 수업시간

(출전)『京城帝國大學一覽(昭和九年)』京城帝國大學, 1934년, 101쪽.

1937년 4월, 김수경은 경성제대 법문학부 철학과에 진학했다. 진학 경위에 대해서는 경성제대에서 언어학을 가르치던 고바야시 히데오(小林英夫)가 해방 후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sup>25)</sup>

김 군은 3학년 말 때쯤 학부 연구실로 나를 찾아와 언어학을 전공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공교롭게도 성대의 법문학부에는 언어학 강좌가 없었기 때문에 전문적 강의를 들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전공을 정해야 했다.

나는 철학과를 권했다. 교수진이 제대로 갖추져 있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앞으로 언어 연구에는 철학적 두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인용문의 함의(含意)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법문학부 학과 등의 구성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표 2는 김수경이 입학한 해의 법문학부 학과, 전공, 강좌담임을 정리한 표이다. 문학과에는 도키에다 모토키(時枝誠記)의 ‘국어학’ 즉 일본어학 외에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의 조선어학 강좌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수경이 고바야시 연구실의 문을 두드린 것은 개별 언어의 연구가 아니라 보다 일반적인 언어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리라. 고바야시는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 1857-1913)의 『일반언어학 강의(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를 번역하는 등의 활약으로 이미 저명인사였지만 동경제대에서는 선과생이었기 때문에 학사 학위가 없었던 탓인지 조교수에 머물러, 강좌를 담임하고 있지 않았다. 이 인용문에서 고바야시가 “언어학

강좌”가 없다고 말한 것도 유럽에서 활발히 연구, 논의되고 있던 비교언어학이나 일반언어학 등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강좌가 없다는 뜻일 것이다.

표2 경성제국대학법문학부 학과·전공·강좌(1937년도)

학과	전공	강좌담당	
법학과	(전공구별없음)	(생략)	
철학과	철학전공	安倍能成	宮本和吉
	윤리학전공	白井成允	秋葉隆
	심리학전공	黒田亮	
	종교학전공	赤松智城	
	미학, 미술사전공	上野直昭	田中豊藏
	교육학전공	松月秀雄	田花爲雄
	지나(支那) 철학전공	藤塚鄰	
사학과	국사학전공	田保橋潔	松本重彦
	조선사학전공	藤田亮策	
	동양사학전공	大谷勝眞	鳥山喜一
문학과	국어국문학전공	高木市之助	時枝誠記
	조선어조선문학전공	高橋亨	小倉進平
	지나어지나문학전공	辛島驍	
	영어영문학전공	佐藤清	

(출전) 『京城帝國大學一覽 昭和十二年』(1937년)에서 작성.

(비고) 강좌명은 전공명에 맞춰 기재했는데 그 중 아키바 다카시(秋葉隆)는 사회학강좌이다. 그리고 서양사 강좌를 담당했던 사학과와 가네코 고스케(金子光介)는 맞는 전공이 없기 때문에 기입하지 않았다. 강좌담당은 통상 교수였지만 가라시마 다케시(辛島驍)만 조교수이다.

고바야시의 조언을 얼마나 받아들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김수경이 진학한 곳은 철학과 중에서도 철학 전공, 이른바 ‘순철’(순수철학) 코스였다. 당시 철학 전공으로 교편을 잡고 있었던 인물은 법문학부장을 맡고 있던 아베 요시시게(安倍能成)와 그의 사위 미야모토 와키치(宮本和吉) 등이었다. 모두 칸트 연구로 알려진 철학 연구자로 경성제대에서는 주로 아베가 철학사, 미야모토가 최신 후설(Edmund G. A. Husserl)의 현상학을 포함한 철학개론을 강의했다고 하는데,<sup>26)</sup> 딱히 언어사상에 대해 정통한 인물들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김수경은 철학과에서 사상사의 기초를 배우면서도 “틈만 나면 내 [=고바야시 히데오] 연구실로 찾아와서 언어학의 지식을 흡수하려고 노력”했다고 한다.<sup>27)</sup>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언급하겠다.

김수경의 학적부가 서울대학교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배웠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다. 규정에 따르면 졸업까지 철학과의 공통과목(철학, 윤리학, 심리학, 미학·미술사, 교육학, 중국철학, 사회학, 사학개론·문학개론), 전공과목(철학, 윤리학인식론, 철학특수강의 및 연습, 그리스어, 라틴어, 그 외 철학과·사학과·문학과에 관한 과목), 외국어(영어, 독일어, 프랑스어)를 배운 후 졸업논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sup>28)</sup> 졸업논문은



해젤철학에 관한 것이었다고 한다.<sup>29)</sup> ‘순철’은 입학 당시 교원은 교수 2명(아베, 미야모토), 조교수 1명(다나베 주조 [田邊重三]), 조수 1명(고형곤 [高亨坤]) 총 4명이고 학생은 1937년도 입학생 4명(김수경, 정해진, 김홍길 [金洪吉], 곤도 토키오 [近藤時雄]), 1938년 입학생 1명(마스나카 겐키 [枡中健毅]) 총 5명밖에 없어서 서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였을 듯하다.<sup>30)</sup> 훗날 미야모토는 ‘순철’ 함께 30여 명의 졸업생 중 90%가 조선인이었고 모두 머리가 좋았다고 회상했다.<sup>31)</sup>

물론 법문학부 시절에 틀림없이 조선어학을 배웠다. 조선어학자인 오구라 신페이는 1933년 이후 동경제국대학 언어학과 교수를 겸임하게 되면서 본거지를 동경(도쿄)으로 옮겨 경성제대에는 가을 집중강의 때 왔으니<sup>32)</sup> 김수경은 이 강의를 청강했을 것이다. 그리고 예과 시절에 관한 것으로는 김수경 등 십여 명이 조선어학회 사무실을 찾아가 이극로(李克魯)에게서 새로운 한글 철자법을 배웠다는 취재 기사가 있다.<sup>33)</sup>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가동맹(KAPF)을 대표하는 작가 임화(林和)와 동기생인 친구현에게서 추천받아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 1865-1935)이 조선의 문헌에 대해 정리한 역작 『조선서지(Bibliographie coréenne)』(1894-1896)의 번역에 착수한 것은 1939년 가을이었다.<sup>34)</sup>

이렇게 예과, 본과 합쳐서 6년간에 걸친 대학 생활을 마친 김수경은 1940년 3월 31일 학사시험에 합격하여 문학사 학위를 취득했다.<sup>35)</sup>

### 1.3 동경제국대학 대학원 진학 때부터 해방까지

경성제대를 졸업한 김수경은 1940년 4월 30일 자로 동경제국대학 문학부 대학원에 입학하여 서류상으로는 1944년 3월 15일 퇴학까지 약 4년간 재학했다. 지도교원은 언어학 강좌를 담임하고 있던 오구라 신페이였으며 연구 과제는 ‘조선어의 비교언어학적 연구’였다. 홀로 동경으로 건너가 처음에는 스키나미구 고엔지(杉並区高門寺)에서 하숙 생활을 한 것 같다.<sup>36)</sup> 당시 대학원에는 박사학위밖에 없었는데 이는 학부 연구과에서 2년 이상 연구에 종사하고 논문을 제출해서 합격한 사람에게 수여되었다.<sup>37)</sup> 대학원생은 각 학부로 나뉘어 소속하여 지도교원의 지도를 받으며 연구에 종사하게 되어 있었다. 재학 기간은 2년이었는데 2년을 다 채운 후에도 1년씩 연장할 수 있었으며 최고 5년까지 재학이 가능했다. 특별한 커리큘럼은 없었고 단지 매년 말에 “그 연구의 상황 및 성적을 기재한 보고서”를 지도교원에게 제출하는 정도였다.<sup>38)</sup> 김수경이 그 보고서를 냈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1943년 2월 10일 자로 3년분을 합쳐서 제출했고 퇴학 후인 1944년 4월 26일에 마지막으로 제출한 것을 보면<sup>39)</sup> 보고서 제출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도 있어 이 시기의 김수경의 행적을 좇는 것은 쉽지 않다. 이하 기본적인

사실관계만 정리해 보기로 한다.

김수경이 대학원에 진학했을 당시 동경제대 언어학연구실에는 우에다 가즈토시(上田萬年) 문하생으로 조선어학자인 오구라 신페이(岡浦新平)가 강좌담임교수, 아이누어학 연구자 긴다이치 교스케(金田一京助, 조교수), 그리스·라틴어 연구자 간다 다테오(神田盾夫, 조교수), 몽골어학 등을 가르치던 핫토리 시로(服部四郎, 강사)가 있었다. 1943년 봄에는 오구라와 긴다이치가 퇴직하면서 핫토리 시로가 조교수로 승진했다.<sup>40)</sup> 이때 김수경의 지도교원도 핫토리 시로로 바뀌었고 바로 그때 3년치의 보고서를 한꺼번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1940년도 동경제대의 대학원생은 총 406명, 그 중 조선에서 온 유학생은 10명이었다.<sup>41)</sup> 그 중에서도 김수경과 가까운 대학원생을 꼽자면 우선 경성제대 ‘순철’ 동기인 정해진이 ‘독일관념론 연구’라는 연구 과제로 진학해 있었고 이화여자전문학교에서 가르치던 조선어학자 이희승(李熙昇, 경성제대 졸업)이 ‘안식년’으로 1940년도 한 해 동안 ‘조선어의 음운적 연구’라는 연구 과제로 오구라 신페이 밑에서 공부하고 있었으며 ‘순철’의 한참 선배인 김계숙(金桂淑)도 독일관념론을 연구하기 위해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다.<sup>42)</sup> 이희승의 회고에 따르면 조선인 유학생들은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친하게 지냈으며 쉬는 날에는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다고 한다.<sup>43)</sup>

대학원 시절에서 중요한 일을 꼽자면 이남재(李南載)와의 결혼을 들 수 있다. 이남재는 중국과 조선의 국경지대인 간도에서 태어나 길림성 용정에서 광명여자고등학교를 나온 후 1936년에 서울 이화여자전문학교 문과에 진학하여 1940년에 졸업했다. 김수경은 1942년 3월 서울에서 열린 경성제대 동기 이명선의 결혼식에 갔다가 이남재를 만났다. 이듬해인 1943년 3월에 들은 서울 경성부민관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동경의 도시마구 가나메초(豊島区要町)에 신혼집을 마련했다.<sup>44)</sup> 이 집은 김수경의 친척인 화가 김민구(金敏龜)의 아틀리에였는데 그가 고향 통천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빌렸다고 한다.

그런데 동경에서의 신혼생활은 오래가지 않았다. 1943년 여름방학<sup>45)</sup> 때 서울로 돌아온 들은 그대로 동경에 돌아가지 않고 김선득이 마련해 준 서울 계카초(惠花町, 현 혜화동) 집에서 살기로 한다. 그리고 서류상으로는 1944년 3월 15일자로 “일신상의 사정”으로 퇴학하고<sup>46)</sup> 4월 15일자로 경성제대 법문학부 조선어학연구실의 축탁이 되었다.<sup>47)</sup> 동경에서의 연구를 중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1943년 봄 오구라 신페이가 퇴직하면서 동경제대에 조선어학 전문가가 없어진 것과 이미 이남재가 임신해 있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학도출신 문제가 가장 큰 이유였다고 생각된다. 이즈음 경성제대 법문학부에서 오구라 신페이의 후임으로 강좌담임을 맡고 있던 고노 로쿠로(河野六郎)가 훗날 언어학자인 간노 히로오미(菅野裕臣)에게 전한 정보에 따르면 “김수경 씨는 학도동원을

피하기 위해 경성제대 조선어 및 조선문학 강좌의 무급 조수를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sup>48)</sup> 촉탁 임용의 책임자였던 고노 로쿠로의 증언이기 때문에 이 정보는 신빙성이 있다고 해도 무방하겠다.

조선인 학도출진에 대한 당시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 조선인에게도 병역법을 시행하기로 내각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1942년 5월이었는데 제반 준비 관계상 법 시행은 1943년 8월, 실시는 1944년 4월부터였다. 한편 학생들이 전장으로 동원되기 시작하면서 1943년 6월에는 ‘학도전시동원체제확립요강’이 내각 회의에서 결정되고 9월에는 법문계 학생의 징병 연기 정지가 결정되면서 10월에는 징병검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는 일본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법령으로 조선인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조선인, 대만인 학생들만이 대학에 남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식민지 학생을 ‘지원’을 통해 현역병으로 편입시키는 법령을 정했다. ‘내지’에서는 대학과 고등전문학교 그리고 조선장학회가 유학생을 ‘지원’시키기 위해 캠페인을 벌였다. 그런데 조선인 학생들은 행방을 감추는 학생들도 많았고 쉽게 출두에 응하지 않았다. “하숙집을 찾아가 봐도 어디 갔는지 며칠 동안이나 돌아오지 않는 학생들이 많았다”라고 당시의 동경제대 교수가 말했다.<sup>49)</sup>

이러한 의미로 보자면 김수경도 ‘행방불명’ 대학원생 중 하나였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동경제대 내부 문서에는 무슨 까닭인지 1943년 말 문학부 대학원에는 조선인 학생이 한 명도 없다고 나온다.<sup>50)</sup>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김수경은 학도출진에 동원되지 않고 서울에서 연구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경성제대 촉탁 시기의 연구 내용에 대해 유일하게 알려진 것은 창씨개명 후의 이름인 ‘야마카와 테쓰(山川哲)’<sup>51)</sup> 명의로 1945년 3월 『「老乞大」諸板의 再吟味』를 등사판으로 인쇄한 것이다.<sup>52)</sup>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검토하겠지만 이 시기의 김수경은 경성제대 부속도서관으로 이관된 규장각의 조선어 관련 사료를 꾸준히 열람하며 연구했던 것은 확실하다.<sup>53)</sup> 동시에 학부 때처럼 고바야시 히데오의 연구실에 드나들며 일대일 강독도 계속하고 있었다. 16세기 포르투갈의 서사시 『우스 루지아다스(*Os Lusíadas*)』를 읽던 중 일본이 패전한다.<sup>54)</sup> 일본이 구렁텅이와 같은 침략전쟁을 자행하고 있을 때 김수경은 조선어사(史)를 깊이 연구하면서 세계의 언어와 언어학을 널리 배워 갔던 것이다.

## 2 식민지하의 언어학연구

이상 1945년 8월 이전 김수경의 행적을 알 수 있는 한 훑어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그중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포인트를 더 깊이 들여다 보겠다. 해방 후 김수경의 언어학은 ‘일본의 조선어학’이나 ‘국어학’이라는 틀에 맞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한 수입이론형 학문은 아니고 조선어사의 문헌학적 축적도 바탕삼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김수경 언어학의 지적 기반의 한 부분에 대해 밝혀 보고자 한다. 우선 김수경의 어학 능력에 대해 확인하고 나서 사회주의와의 관계를 검토한 후 철학과 일반언어학, 구조언어학을 지향한 점과 역사언어학에 기반한 조선어학을 지향한 점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 2.1 김수경의 지적 배경

김수경을 직접 아는 사람들은 입을 모아 그의 어학력에 대해 말한다. 우선 군산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는 것만 보더라도 재조 일본인 학생들만큼의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서당이나 가정에서 한문 교육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보통학교, 중학교, 예과 과목에는 한문이 있었으니 그 수업에서 기초는 습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는 영어를 배웠다.<sup>55)</sup> 대학 예과 수료까지는 앞서 말했듯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를 습득했다. 영어는 예과의 우메하라 요시카즈(梅原義一)·고다마 사이조(兒玉才三) 두 교수의 지도 아래 정해진 등 동기생들과 함께 ‘영어연구회’에서 공부했다. 연구회에서는 18세기 영국 낭만파의 시 등을 탐독했다.<sup>56)</sup> 독일어는 예과의 제2외국어였는데 철학과 시절에는 상당한 수의 독일어로 된 철학서를 강독했음이 분명하다. 프랑스어 과목은 예과에 없었기 때문에 본과에 진학하기 전에 어떻게 마스터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른 언어에 대해서도 짚어 두겠다. 철학과에는 그리스어와 라틴어가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었다. 러시아어는 법문학부 강사인 치르킨(S. V. Čirkin, 1879-1943)에게서 배웠다.<sup>57)</sup> 치르킨은 제정 러시아의 외교관으로 러시아 혁명 이후에 이전 부임지였던 서울로 와서 살았던, 이른바 백계 러시아인이었다.<sup>58)</sup> 학기말까지 수업을 계속해서 들었던 학생은 아주 드물었는데 김수경은 그중 하나였다고 한다.<sup>59)</sup>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는 고바야시 히데오에게서 초급을 배웠다. 이탈리아어는 단테의 신곡을, 스페인어는 현대작가의 작품을, 포르투갈어는 앞서 말했듯이 우스 루지아다스를 강독했다.<sup>60)</sup> 해방 직후에는 산스크리트어 강의를 했다고 하니<sup>61)</sup> 강의를 할 정도의 학습은 했다는 말이다. 몽골어도 습득한 것 같은데<sup>62)</sup> 아마 동경제대의 핫토리 시로와의 관계로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후술할 『老乞大』 연구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리하여 김수경은 1945년(27세)까지 인도-유럽어의 고전어(그리스어, 라틴어, 산스크리트), 현대어(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그

리고 동아시아의 고전어라 할 수 있는 한문과 여러 언어(조선어, 일본어, 중국어, 몽골어)를 습득했다고 할 수 있다(이 외에도 다른 언어를 구사했을 수도 있다). 이렇듯 보기 드문 어학 능력이 김수경 언어학의 폭을 넓혔다고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김수경의 지적 기반의 국제성을 생각할 때 사회주의와의 관계는 검토해야 한다. 단 미리 말해 두겠지만 김수경이 식민시 시기에 사회주의자였다는 직접적 증거는 없고 간접적 상황증거만이 있다. 작가 리기춘의 소설에는 경성제대 시절에 김수경이 김석형과 박시형(朴時亨, 선과생으로 1937년에 법문학부 사학과 입학), 신구현 등과 함께 비밀리에 ‘독서회’를 결성하여 마르크스 레닌주의 철학과 경제학 서적들을 독파했다고 쓰여 있다.<sup>63)</sup>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소설만을 근거로 삼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우선 일반적 상황을 보자면 아베 요시시게는 “그 나라의 정치에 불평”을 지닌 조선인 학생들 중에는 “공산주의적 경향에 빠지는 자가 많”았다고 회고하였으며 그 예로 아베 문하에서 조수를 하던 ‘순철’ 학생의 이름을 들었다.<sup>64)</sup> 그리고 저널리스트 이충우(李忠雨)는 법문학부 시절에 대해 “도서관에 비치된 소련신문 이스베스차(지식인이라는 뜻)와 프라우다(진리라는 뜻)지는 金壽卿(철[학과] 12[기생])의 독차지나 마찬가지였다”라고 기록했다.<sup>65)</sup> 당시 경성제대 부속도서관이 소련의 신문을 정기구독하여 학생들도 손쉽게 열람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사회주의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데에 흥미로운 에피소드임은 분명하다. 더욱이 동경제대 시절에 단기간 지도교원이었던 핫토리 시로는 1948년경 최근 ‘소문’으로 “그 김 군이 종전 전에 이미 공산당원”이었다고 말했다 한다.<sup>66)</sup> 월북한 후에 들은 ‘소문’인데다가 이미 당조직이 괴멸상태였던 시기에 ‘당원’이라고 하는 말에 의문은 들지만 어떤 형태로건 비공식활동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인적 관계에 관해서 말하자면 우선 김수경의 어머니 이소옥의 남동생(그러니까 김수경의 외숙부)인 이종식(李鍾植)이 경성제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법학과 1930년도 졸업). 마르크스주의자라고 하며 1920년대 말에는 경성제대 내의 반제동맹에도 참가했다.<sup>67)</sup> 김수경과 같은 시기에 동경제대 대학원에 진학했던 ‘순철’ 선배 김계숙은 경성제대 시절에 경제연구회에 참여하여 플레하노프(G. V. Plekhanov)나 부하린(N. I. Bukharin)의 유물론 등을 읽었다.<sup>68)</sup> 경성제대 동기생 중 몇 명은 졸업 후에 관련 활동을 했다는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신구현은 경성제대 졸업 후에 중앙중학교에서 가르쳤는데 1941년 9월 조선공산당 대건운동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되었다.<sup>69)</sup> 김석형과 박시형은 대학 졸업 후 각각 서울의 양정학교와 경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1945년 3월 함경남도 고원경찰서에 검거되어 8월 15일까지 함흥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었다.<sup>70)</sup> 김석형의 유족들은 그가

한글 연구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말하지만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sup>71)</sup> 정해진은 앞의 인물들과 같이 검거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는 없었지만 동경제대 시절에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일원으로 활동했다고 그의 유족들이 전한다.<sup>72)</sup>

김수경은 해방 직후 서울에서 간행한 번역서의 후기에서 “오래동안 篋底에 과무쳐있던 手稿가 [...] 오늘날 햇빛을 보게된 것은 오직 朝鮮의 解放을 爲하여 싸워온 革命鬪士들의 餘澤이 아닐수 없”다고 하며 독립운동가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sup>73)</sup> 이것은 해방 후 갑자기 든 마음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도 김수경은 평소에 과묵한 사람이라 필요 이상의 말을 하지는 않았다. 고바야시 히데오도 “그는 비밀을 지킬 줄 아는 남자였다”라고 했다.<sup>74)</sup> 그가 사회주의나 조선민족에 대한 열의를 지니고 있었다고 해도 주위 사람들에게 쉽게 털어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의 얼굴 깊숙한 곳에는 쉽게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이 글로벌한 규모로 숨겨져 있었다.

## 2.2 구조언어학과 역사언어학

이상 1945년 이전 김수경의 지적 배경을 살펴보았고 다음으로는 그의 언어학 형성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유럽 언어학은 그리스·라틴 고전연구와 산스크리트의 ‘발견’을 계기로 한 인도-유럽어의 역사적 비교문법연구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19세기까지는 주로 ‘문헌학(philology)’으로 불렸다. 그 후 구체적인 문헌의 축적에 기반한 역사언어학은 언어학의 한 축을 이루는데 20세기에는 본래 언어란 무엇인가를 탐구한 소쉬르의 일반언어학과 소쉬르 이후의 제네바, 프라하, 코펜하겐 등지와 미국에서 전개된 이른바 구조언어학, 소련을 중심으로 전개된 마르크스주의 언어학 등 다양한 조류가 연이어 형성되었다.<sup>75)</sup> 김수경 언어학의 초기 형성과정에서는 일반언어학과 구조언어학, 나아가 언어철학 등, 보다 보편적 언어문제를 지향하는 부분과 조선어에 관한 개별적, 구체적 역사언어학을 지향하는 부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한다. 이 점을 확인해 두고자 한다.

소쉬르가 제네바대학에서 했던 강의를 제자들이 정리한 『일반언어학 강의』(1916년)는 1928년 『언어학원론』이라는 제목으로 오카쇼인(岡書院)에서 일본어 번역판이 출간되었는데 이 책을 번역한 사람이 고바야시 히데오였다. 고바야시는 경성제대 시절에 이 책을 개역하여 세로쓰기에서 가로쓰기로 바꾼 신판을 이와나미쇼텐(岩波書店)에서 출간했는데(1940년), 그때 ‘역자서문’에서 “옛 번역문을 가로쓰기로 옮겨쓰는 작업을 도와 주신 듯코 노부코(獨古信子) 씨와 모 미망인 및 김수경 세 분의 공로”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sup>76)</sup> 이미 프랑수에 능통했던 김수경은 틀림없이 단순한 옮겨쓰기 이상의 역할을 했을 텐데, 어쨌든 소쉬르를 정독했다는 것은 확실하다. 해방 후 공표한 논문에서도 소쉬르와

그의 제자 바이이(C. Bally)의 언어론을 원전인용한 것을 보면<sup>77)</sup> 제네바학파에 대해서도 배웠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고바야시는 당시 유럽의 언어학 논문을 왕성하게 번역, 소개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제네바의 소쉬르와 바이이, 세슈에(A. Sechehaye)뿐만 아니라 프라하학파의 트루베츠크이(N. S. Trubetzkoy), 코펜하겐 학파의 엘름슬레우(L. Hjelmslev)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sup>78)</sup> 김수경은 이러한 최신 구조언어학의 이론을 접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수경이 직접 인용한 일반언어학, 구조언어학 연구는 소쉬르와 바이이밖에 없었으나 그때는 프라하학파에 사상적으로도 방법적으로도 깊은 영향을 받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우선 사상적 측면으로 보자면 1942년 2월 서울에 잠깐 돌아와 있던 김수경은 경성제대 철학담화회의 정기 모임에서 “언어의 본질: 마르티를 따라”라는 제목의 발표를 했다.<sup>79)</sup> 그곳에서 발표한 내용의 기록은 없지만 이제는 언어학계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 마르티(Anton Marty, 1847-1914)의 언어철학에 주목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흥미롭다. 마르티는 스승인 브렌타노의 기술심리학을 언어연구에 응용하여 언어의 역사적 변화보다는 심리나 의사와 같은 관점으로 현재의 언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탐구했기 때문에 구조주의의 선구자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sup>80)</sup> 특히 마르티는 야콥슨(R. Jakobson)이나 마테지우스(V. Mathesius), 트룅카(B. Trnka) 등 프라하학파의 “이론과 실전에 명백한 흔적을 남긴” 철학자이다.<sup>81)</sup> 김수경은 현대언어학의 사상적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 마르티에 다다랐음이 분명하다.<sup>82)</sup>

방법론이라는 측면에서도 김수경은 해방 직후인 1945~47년경에 탈고한 논문에서 프라하학파가 확립한 음운론(phonology)을 이미 능숙하게 구사하고 있었다.<sup>83)</sup> 여러 언어들의 물리적 발음을 보편적, 객관적 기준으로 분석하는 음성학(phonetics)에 비해 음운론은 개별 언어의 사용자에게 지적 의미를 부여하는 음의 구별에 주목한다(예를 들어 일본어의 /ㄴ/은 음성학적으로는 [n]·[m]·[ŋ] 등의 발음으로 구별할 수 있지만 음운론적 관점에서 보자면 그 구별은 의미가 없다). 그때 그 언어에서 구별되는 음의 단위를 음소(phoneme)라 하고 각 음소를 구별하는 특징을 변별적 특징(distinctive feature)이라 한다. 어느 한 음소와 다른 음소를 변별하는 것을 음의 대립(opposition)이라 하는데 예로 유성음과 무성음으로 나뉘는 대립을 들 수 있다. 이렇게 그 언어에 의미가 있는 음의 대립을 추출해 가는 것이 음운론의 중요한 프로그램이었다.<sup>84)</sup> 김수경의 해방 직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적 훈련을 거친 흔적이 여러 군데 보인다.

이렇듯 일반언어학, 구조언어학을 지향함과 동시에 김수경은 역사언어학에도 심취해 있었다. 우선 고바야시 히데오 문하에서는 이미 인도-유럽어의 역사언어학의 고전인 베

이에(A. Meillet)의 『역사언어학에서의 비교 방법』을 프랑스어로 통독했다.<sup>85)</sup> 이 책은 각각 다른 언어 사이에서 표면적 요소만을 안이하게 비교하지 않고 보다 엄밀히 비교하기 위한 방법을 다룬 저서인데 김수경의 조선어사 연구에 일정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된다. 메이에의 제자인 방드리(J. Vendryes)의 역사언어학도 참조하면서<sup>86)</sup> 인도-유럽어학의 엄밀한 방법론을 습득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어학에 관해서는 물론 오구라 신페이(新井)의 연구를 접하며 그의 문헌학적 축적을 배웠음은 분명하다. 다만 학문적 영향 관계가 반드시 사제관계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경성제대에서 오구라 신페에게서 조선어학을 배운 이승녕(李崇寧)도 그의 강의에 대해서 “끝까지 文獻學的 테두리를 못 벗어난 느낌”에다 “新味가 없고 羅列과 소개에 그친 感이 짙어”서 오히려 “才氣가 넘쳐 흐르는” 고바야시 히데오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회상했다.<sup>87)</sup> 김수경 또한 오구라 신페에게서 조선어사를 배우면서도 그 틀을 넘어서려 했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김수경은 쿠랑의 『조선서지』를 1939년부터 번역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이때의 번역에는 단순히 가로쓰기로 쓰인 원문을 세로로 고쳐쓰는 작업만이 아니라 역주 달기도 포함되었다. 해방 후 출판했을 때에는 ‘현학적’이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역주를 모두 지워 버렸지만<sup>88)</sup> 뒤집어 말하자면 본인의 서지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상세한 역주를 달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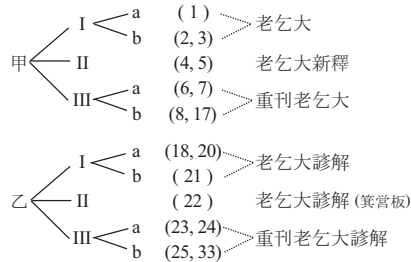
동경제대 대학원과 경성제대 촉탁 시절의 김수경은 이러한 조선어사 자료에 폭 빠져 있었다고 여겨진다. 특히 서울에서 1945년에 인쇄한 『「老乞大」諸板の再吟味』는 이 시기의 김수경 연구의 방향성을 잘 보여준다. 이 책은 한 해 전에 경성제대 법문학부에서 발행한 영인본 『老乞大諺解』<sup>89)</sup>(이하 「성대본(城大本)」)의 별책부록이었다. 『老乞大』는 조선에서 만들어진 중국어 회화독본인데 ‘언해(諺解)’란 중국어에 한글로 발음과 역주를 단 것이다. 조선왕조의 궁정도서관이었던 규장각(식민지 시기 경성제대 부속도서관으로 이관)에는 『老乞大』와 『老乞大諺解』 등 각종 판본이 소장되어 있었다. 이 『老乞大諺解』 가운데 경성제대의 조선사 강좌 교수인 스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가 좋은 책이라 판단한 것을 골라 해제를 달아서 영인출판한 것이 성대본이었다. 스에마쓰는 해제에 한자가 잘못 표기된 것을 일부 지적했는데 출판 후 법제사 강좌교수인 나이토 기치노스케(内藤吉之助)가 잘못 표기된 것이 모두 고쳐져 있는 별본이 규장각에 있다고 지적했다. 즉 성대본의 원본은 교정이 완성되지 않은 본이고 교정이 완성된 정정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때 스에마쓰는 성대본의 원본과 정정본과의 비교대조와 부속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여러 판본의 종합조사를 촉탁인 김수경에게 의뢰했



다.<sup>90)</sup> 그 보고서를 출판한 것이 바로 『「老乞大」諸板의 再吟味』였던 것이다.

김수경은 우선 규장각 도서에서 33점의 『老乞大』를 찾아냈다. 그후 서지 사항을 비교 대조하는 조사는 얼마든지 번잡한 작업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 보고서의 흥미로운 점은 김수경이 그 작업을 “필자의 고안”에 따른 기호로 정리, 분류했다는 점이다. 즉 그는 본문에서 사용되는 언어(갑 / 을), 본문 내용(I / II / III), 동일 내용본 중 판본(a / b), 동일 판본의 인쇄(1, 2,..)라는 네 가지 변수로 정리했다. 이 작업의 결과 여섯 종류의 이본(異本)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본들은 그림 2와 같이 정리되었다. 여러 판본을 비교 대조하여 계통을 밝히는 수법 자체는 서지학의 정공법이겠지만, 네 가지의 단순한 변별적 특징의 조합으로 텍스트 간의 관계의 구조를 기호화하는 솜씨는 그야말로 구조주의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성대본의 원본과 정정본에 대해 한문 부분뿐만 아니라 한글 부분까지 비교하였다. 대단히 기초적인 서지적 연구인데 해방 직후 조선어학자인 방중현(方鍾鉉)은 “누구나 한번은 아니할 수 없는 重大한 일을 氏 [김수경]가 모든 사람을 爲하여 먼저 해 놓은 것이다.”라 하며 “實로 이 方面 專門家에게 좋은 資料”라고 절찬했다.<sup>91)</sup> 하지만 등사판이라서 널리 보급되지 않은 탓인지, 김수경이 월북했기 때문인지, 이유는 알 수 없으나 『「老乞大」諸板의 再吟味』는 1990년대까지 “빠뜨려서는 안 될 중요한 업적인데도 그 내용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sup>92)</sup>이 되고 말았다.

그림 2. 老乞大의 여러 판본



당시 조선어사의 자료는 대표적인 것이라 해도 희귀본으로 분류되어 조선인 연구자가 쉽게 접할 수조차 없었다.<sup>93)</sup> 그러한 상황에서 조선어사의 원자료를 접한 경험은 김수경 언어학 형성에 있어 중요한 축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소쉬르의 표현을 빌리자면 김수경은 언어를 동시대의 관계성 속에서 파악하는 공시적(synchronic) 관점과 역사적 변화 속에서 파악하는 통시적(diachronic) 관점을 둘 다 획득하려 했다고 할 수 있다.

### 3 탈식민지화와 분단 속의 조선어학

일본의 패전과 조선의 해방은 김수경의 언어학에 어떠한 의미일까. 이번 장에서는 우선 미군정하 남조선에서의 김수경의 행적을 가능한 한 밝혀내어 월북의 배경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전쟁 전 —소련에서 스탈린이 언어학에 관한 논문을 『프라우다(Pravda)』 지에 실기 전이기도 하다— 시기에 한정시켜 김수경의 언어학을 1945년 이전의 연장선상에서 살펴보겠다.

#### 3.1 월북 전의 활동과 연구 : 두 가지 종합대학 계획 사이에서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은 경성제대 조선인 교직원 및 학생들의 움직임은 재빨랐다. 8월 16일에는 이미 경성대학 자치위원회를 조직했고 17일에는 대학 접수를 서둘렀다. 자치위원회는 대학 정문에 걸린 ‘경성제국대학’ 간판에서 ‘제국’ 두 글자를 검게 칠해 지우고 연구실과 도서관 등도 잠그거나 경비했다.<sup>94)</sup> 김수경도 이 자치위원회의 멤버였다. 이력서를 보면 8월 15일 자로 경성대학 자치위원회 법문학부 위원이 되었다고 적혀 있다.<sup>95)</sup>

미군이 인천에 상륙한 것이 9월 8일이었으니까 그 전의 자치위원회는 말 그대로 조선인이 주도하는 조직이었다. 자치위원회에는 당시 조선 전체의 동향이 반영되어 좌파가 압도적 우세였다. 서울의 각 전문학교, 대학의 자치조직은 협의회조직까지 결성했으나 9월 11일부터 업무를 개시한 미군정의 학무당국은 이러한 자치조직을 무시한 채 고등교육 행정을 진행시켰다.<sup>96)</sup> 이러한 좌파 주도의 대학 자치조직과 미군정과의 갈등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다. 경성제대 제1기생이었던 유진오(兪鎭午)의 회상에 따르면 10월 초에 김수경, 이명선, 주재황(朱在璜) 등 자치위원회 멤버들이 찾아와서 대학재건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한다.<sup>97)</sup> 그 후 교직원과 학생, 졸업생들로 구성된 대학총회가 총장 후보를 선출했지만 결국 미군정은 그들의 의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sup>98)</sup> 고바야시 히테오가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에 들은 바로는 김수경이 조교수로 언어학 강좌를 잇기로 내정되어 있었다고 한다.<sup>99)</sup> 단 이것도 대학의 자치조직 내부의 내정이었던 듯 실현되지는 않았다. 법문학부 건물은 미육군항공대 제308폭격대가 점거하여 수업도 이듬해 봄까지 개강되지 못했다.<sup>100)</sup> 결국 김수경은 1945년 11월 30일 자로 경성대 촉탁 및 자치위원회 위원을 그만두었다.<sup>101)</sup>

한편 해방 직후부터 대학 바깥에서 김수경이 관여한 것은 진단학회의 재건이었다. 진단학회는 조선문화연구를 목적으로 1934년 서울에서 발족한 조선인 연구자들의 학회인

데 1942년 조선어학회 탄압사건으로 활동을 중단하고 있었다. 1945년 8월 16일 서울 인사동의 태화정에서 진단학회 회원들이 모여 재발족을 위한 모임을 열고 위원장으로는 민속학자인 송석하(宋錫夏)를 선출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김수경은 상임위원의 일원으로 간사를 맡게 되었다.<sup>102)</sup> 이때 진단학회는 좌파도 우파도 함께 모인 학회였고<sup>103)</sup> 건국준비 위원회에도 참여했으며 미군정하에서는 군정 당국과의 관계도 맺고 있었다. 김수경이 진단학회에서 한 활동에 대해 확인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104)</sup>

- |              |   |
|--------------|---|
| 1945년 10월 9일 | 훈민정음 반포 기념강연회에 이승녕과 함께 참가                   |
| 11월          | 논문 「「龍飛御天歌」挿入子音考」 탈고, 입고                    |
| 12월 25일      | 제2회 정기 모임에서 “蘇聯아카데미를爲한新進學徒의養成” 발표           |
| 1946년 2월 26일 | 조선산악회 주최 제주도 한라산 학술조사대에 진단학회 멤버로 파견(-3월17일) |

이 중 논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제주도 조사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설명하기로 하겠다. 조선산악회는 단순한 동호회가 아니라 해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송석하를 회장으로 결성된 국토조사를 위한 조직이었다.<sup>105)</sup> 제주도 한라산 조사에 대해 송석하는 조사를 후원한 자유신문사의 인터뷰에서 “제주도 조사는 왜적의 군사기밀 기지로 되어 있든 만큼 감히 엄두를 낼수 업든 곳이었다. 지리상으로 보아 제주도는 남방문화권에 들어 ‘크로스’하는 점으로 보아 이번 조사단에서 제주를 선택하였다”라고 답했다. 조사단은 언어학반에 김수경이 동행하고 등산의학반, 일반사회반, 설질(雪質)조사반, 기상반, 녹음반, 영화반, 사진반, 채보(採譜)반 등 18명의 대원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미군정의 적극적 지원하에 인류학, 고고학 등을 전공한 3명의 미국인도 동행했다. 3주 동안의 조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조사단은 3월 30일 왜성대에서 보고강연회를 열었다. 김수경은 그 자리에서 “언어를 통해 본 제주도문화”를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송석하에 따르면 채집한 방언과 무당소리의 옛말 속에 “몽고의 영향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sup>106)</sup> 이렇듯 김수경은 녹음반과 함께 역사적 관점으로 실증적 방언조사를 실시했음을 엿볼 수 있다.

경성대학을 그만둔 김수경은 1945년 12월 1일 자로 경성경제전문학교의 교수가 되어 프랑스어 등을 가르치게 되었다.<sup>107)</sup> 이 학교의 전신은 식민지 시기 관립 경성고등상업학교였는데 1944년에 규모가 줄면서 이름도 바뀌었다. 경성경제전문학교는 1946년 여름에 창립된 서울대학교의 상과대학이 되는데 당시에는 좌파 강사가 많았다. 농업경제의 김한주(金漢周), 사회경제사의 김석담(金錫淡), 경성제대 동기인 역사학자 박시형, ‘순철’ 선

배 박치우(朴致祐) 등 훗날 월북한 연구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듬해 1946년 봄부터는 경성대학 법문학부 강사를 겸임하는 등 경성대학 예과와 경성사범학교(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전신)에 부설되어 있던 임시중등교원양성소에서 조선어학개론을 가르쳤다.<sup>108)</sup> 이렇듯 김수경은 얼마 후 서울대학교로 이어지는 여러 학교들에서 언어학 강의를 하고 있었다.

서울에서 대학 통합 방침이 검토되고 있을 무렵 평양에서도 종합대학 설치를 위한 준비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5월 북조선종합대학창립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 필요한 교수의 수와 교수 선정방법을 책정했다.<sup>109)</sup> 7월 8일에는 9월 1일에 김일성대학을 개교하기로 결정되었다.<sup>110)</sup> 그런데 식민지 시기에는 조선총독부가 중등, 고등교육을 억제했기 때문에 조선의 대학은 경성제대 한 곳뿐이었고 전문학교도 서울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때 “다수 과학 문화인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하여 남반부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서 조선 북부에서는 “대학 교수 교원의 경험을 가진 인재들은 십지로 헤일 정도”였다.<sup>111)</sup> 따라서 필요한 인재를 조선 남부 혹은 해외유학자들로 채워야 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남의 좌파계 학자들을 모으기 위해 경제학자 김광진(金洸鎭)을 비롯한 연구자들이 남으로 파견되어 교수 위촉을 위한 공작활동을 하게 되었다.<sup>112)</sup>

평양에 종합대학이 창설된다는 소식은 금세 남의 좌파계 신문에도 보도되었다.<sup>113)</sup> 한편 때마침 같은 무렵(7월 13일) 미군정은 전문학교 등을 통폐합하여 9개의 단과대학으로 구성되는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안(국대안)을 발표했다. 이에 학생과 교직원 등이 반대운동을 펼쳐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 2년이 걸리게 된다(이른바 ‘국대안 파동’). 김수경이 국대안 반대운동에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미군정하에서 대학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월북하게 된 배경의 하나였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sup>114)</sup>

김수경의 월북 경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지만 우선 경성제대 동기생이었던 박시형이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한 것은 틀림없다. 김수경이 서울에서 조선공산당에 정식 입당한 것은 1946년 5월 6일이었는데 이때의 가입보증인이 바로 박시형이었다. 김석형과 함께 1945년 10월에 이미 당원이 되어 있었던 박시형이 김수경의 입당을 중개한 것으로 보인다.<sup>115)</sup> 박시형은 1981년에 공표한 수기에 1946년 8월 어느날 “뜻밖에도 평양에서 찾아온 한 일군”에게서 김일성이 초대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썼다.<sup>116)</sup> 그리고 소설 『삶의 메부리』에는 김수경을 찾아온 박시형과 김석형이 대학 위촉의 뜻을 전달하고 조금 늦게 도착한 신구현이 김일성 명의의 위촉장을 가지고 왔다고 묘사되어 있다.<sup>117)</sup> 신구현이 1946년 2월 시점에는 이미 월북하여 원산노동자정치학교의 교장이 되어 있었고 8월에는 김일성대학 교원이 되는 경위를 보면<sup>118)</sup> 신구현 또한 어떠한 역할을 했다

고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김수경은 “8월 17일 야반 반바지에 등산모자를 쓰고 몰래 38도선을 넘어 입북” 했다.<sup>119)</sup> 28살 여름이었다. 서울에 남아 국대안 과동 속에서 연구자 생활을 계속할지, 공산주의혁명이 진행 중인 평양에서 새로운 대학 만들기에 참여할지, 이 양자선택지 가운데 후자를 택한 것이다. 김석형과 박시형이 동행했고 출발 직전까지 아내에게도 알리지 않은 정말 ‘몰래’ 한 월경이었다.<sup>120)</sup> 책도 그 무엇도 가지고 갈 수 없었고 입고 있던 복장 그대로 월북한 것이다. 그 후 남북 조선이 이렇게까지 오래동안 분단되리라 상상도 못했으리라.

### 3.2 김일성종합대학과 조선어문연구회

김수경은 1946년 8월 20일 자로 김일성대학 문학부 교원으로 임명되었다.<sup>121)</sup> 9월 15일 개교식이 열렸고 10월에는 개강했다고 하니 꽤나 분주했으리라 짐작된다. 처음에는 문학부에 사학과, 문학과, 교육학과 세 학과밖에 없었는데 조선어학은 문학과에 포함되었다.<sup>122)</sup> 이듬해 1947년 1월 자 김일성대학총장 김두봉(金斗奉) 명의로 된 서류를 보면 그때까지 임명된 교원은 139명(시간강사 및 조수 등은 제외)이고 그중 문학부 교원은 31명이었는데 언어학 담당은 김수경 한 명이었다(‘조선어’는 김수경 외 4명의 강사가 있었다).<sup>123)</sup> 같은 해 7월에는 전임교원을 60명 늘린다는 안이 내부에서 작성되어 언어학 분야에서는 김병제(金炳濟) 등을 남으로부터 ‘초빙’한다는 계획이 입안되었다.<sup>124)</sup>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1949년 신년도까지 10학부 24강좌, 교원수 153명, 학생수 2,746명으로 구성된 종합대학으로 편성되었다. 문학부는 역사학부(조선사학과, 세계사학과, 철학과), 조선어문학부(조선어학과, 조선문학과, 신문학과), 외국어문학부(노문학과, 영문학과) 등으로 분할되었다. 그중 김수경이 소속된 조선어학과는 학생수 71명, 소속 교원수 5명으로 확장되었다.<sup>125)</sup>

김수경은 학부 운영뿐 아니라 1946년 10월 1일 자로 도서관장에도 임명되었다. 대학 10년사에 기록되어 있듯이 “한 권의 책도 없는 상태로부터 출발하면서 도서관 사업은 무엇보다도 먼저 도서들을 광범히 수집하는 사업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하였다.”<sup>126)</sup> 김수경은 임용 시 조사서에서 “語學方面에 가장 優秀한 素質이 있고 先進 各國語에 能通, 言語學에 獨步的存在”라 평가받았는데<sup>127)</sup> 외국어에 능통하고 서지학에 대해서도 잘 아는 그는 도서수집을 우선과제로 삼은 도서관 창립 과정에서 빠뜨릴 수 없는 인재였을 것이다. 언어학자이자 혁명가였던 김두봉이 조선어 문헌을 기증하는 등 일반 기증서 3만 4천여 권을 모았고 소련군사령부로부터도 25,524권의 각종 도서를 기증받았다. 남북조선에서

34,073권을 구입했다. 1949년에는 중국동북인민정부로부터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도서를 받았고, 레닌그라드과학원도서관으로부터도 다수의 학술서를 기증받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48년에는 9만 8천여 권, 1950년에는 13만 5천여 권(한문서적 7만여 권, 양장본 6만여 권)의 장서를 갖춘 도서관이 되었다.<sup>128)</sup>

이 시기 김수경이 주력한 것은 1947년 2월에 조직된 조선어문연구회 활동이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결정서에는 이 연구회의 설립취지에 대해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어의 발전을 멈추게 하였지만 “오늘날 民主主義自主獨立國家建設의 途上에 있어서 科學的理念에 根據한 研究를 거듭하여 朝鮮語文의 統一과 發展을 期”함으로써 “朝鮮民族文化建設의 基礎”를 다지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조선어문연구회 본부는 김일성대학에 설치되었고 교육국 총무부장과 김일성대학총장(김두봉)이 책임자, 조선어학회에도 참여했었던 신구현이 위원장을 맡았다. 한자, 가로쓰기, 철자법의 원안 작성(1947년 말까지)과 조선어사전 편찬(1949년 말까지)을 큰 사업으로 내걸었다.<sup>129)</sup> 후술하듯이 이 무렵 김수경은 철자법에 관한 논문(후술)을 발표했는데 이 연구회 과제의 일환이었다고 생각된다.

1948년 남에서는 8월에 대한민국이, 북에서는 9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건국을 선언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10월의 내각결정에 의해 조선어문연구회는 교육성으로 이관되어 조선어문법 교과서와 조선어사전을 1949년 말까지 발간하는 것을 임무로 정했다.<sup>130)</sup> 김수경은 문법편집분과위원회(위원장 전몽수 [田蒙秀])의 위원으로 1949년에 발간된 『조선어문법』 편집의 중심 멤버로 참여했다.<sup>131)</sup>

조선어문연구회가 잡지 『조선어연구』를 발간했던 1949~50년이 김수경의 연구 생활 가운데 가장 많은 논문 등을 발표한 시기였다. 이름을 명기한 것만 들더라도 논문 3편, 소련의 언어학 개설서를 번역한 단행본 1권과 논문 6편을 발표했고 『조선어문법』을 출판했다(문헌목록 참조). 이외에도 이름은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김수경이 쓴 논문 등도 있을 것이다.

사생활을 보자면 우선 1946년 10월에 아내와 어머니, 두 아이, 여동생, 사촌여동생이 평양에서 합류했다. 김일성대학의 관사 제4호에 주거를 마련했고 1948년, 49년에는 잇달아 두 아이(오늘 강연하시는 분)가 태어났다. 관사 옆에는 김석형의 가족이 살고 있었다. 김수경의 아내 이남재와 김석형의 아내 고헌인(高學仁)은 이화여자전문학교의 동기생이기도 해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1950년 김수경은 사생활에서도 학문적으로도 충격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하나는 말할 나위 없이 한국전쟁의 발발이다. 김수경은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

며 살아 남았지만 가족과는 생이별을 하게 되고 만다. 또 하나는 한국전쟁 직전에 일어난 소련의 언어학이론의 대전환이다. 이 전환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하겠다.

### 3.3 연구와 조선어의 구축

1945년 8월부터 한국전쟁 발발 전까지의 약 5년 동안은 흔히 ‘해방공간’이라 불린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되어 남북이 분단되면서도 유동적 상황 속에서 다양한 가능성이 모색되고 있었던 시기를 표현하는 데에 적합한 용어이다. 이번 절에서는 해방공간 때의 김수경의 연구업적에 대해 검토해 보겠는데 양이 많은 만큼 논점도 여럿 있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본 논문의 2.2에서 제기한 논점, 즉 (1) 일반언어학 이론 지향성과 (2) 역사언어학 지향성과의 관계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월북 후 국가의 언어정책에도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김수경 언어학에 큰 영향을 끼쳤다. 즉 언어가 ‘지금 이렇다’, 혹은 ‘예전에 이랬다’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기술(記述)적 언어학에 그치지 않고 ‘이래야 한다’라는 표준을 책정하려는 언어학, 즉 (3) 규범문법에 관한 연구 활동이 김수경 연구의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3) 규범문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1) 일반언어학이론과 (2) 역사언어학은 중요한 위치를 점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하 (1), (2), (3) 순서로 검토해 보자.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논문에 주목하고자 한다.<sup>132)</sup>

논문 ① 「朝鮮語學會 『한글 맞춤법 통일안』 中에서 改正할 몇가지 其一 漢字音表記에 있어서 頭音ㄴ及ㄹ에 對하여」(1947년)

논문 ② 「訓民正音成立史考」(1949년, 탈고는 1947년중)

논문 ③ 「龍飛御天歌에 보이는 插入 字母의 本質」(1949년)

논문 ①은 규범문법, 논문 ②·③은 역사언어학에 관한 논문이다.

우선 김수경은 1957년에 고바야시 히데오에게 보낸 서한에서 “어쨌든 언어학의 일반이론적 기초 위에 조선어학을 구축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라고 썼다. 다른 언어나 일반이론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조선어학을 구축하는 것은 아마도 김수경 언어학의 일관된 신념이라 부를 만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당시 ‘위대한 소련군’에 의해 해방되었다고 스스로 규정된 북조선에서 소련의 학문체계는 가장 ‘선진적’이라 간주되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일반이론의 중심이란 소비에트 언어학이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1950년 6월에 스탈린의 비판에 의하여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 무렵 소비에트

언어학의 중추으로 독재적 지위를 지녔던 것이 마르(N. Ya. Marr, 1865-1934)와 마르주의 언어학이었다.

김수경은 1949~50년 사이에 소련의 언어학을 잇달아 번역, 소개했는데, 모두 많게든 적게든 어느 정도는 마르 언어학에 기반을 둔 ‘신언어이론’에 관련한 것이었다. 조지아 출신으로 캅카스 지방의 여러 언어를 연구했던 마르는 1920~30년대에 페이예를 비롯하여 구미에서 진행 중이던 인도-유럽어 연구를 중심으로 한 ‘부르주아 언어학’을 비판하고 ‘야페트 이론’으로도 불리는 언어의 통일이념을 제기했다. 모든 언어가 일원적으로 발생하여 동일한 단계적 변화를 거쳐 발전한다는, 언어의 일원적 발전단계론이 ‘유물론적 언어학’ 체계를 구축했다고 일컬어지는 신언어이론(야페트 이론)의 특징이었다. 경제(생산양식)를 토대(하부구조)로 삼아 언어를 하부구조에 규정되는 상부구조라고 생각하는 사적유물론이 그 기초를 이루었다.<sup>133)</sup> 신언어이론이 부르주아 민족주의에 대한 국제주의적 이론이자 서구중심의 언어학에 대해 약소민족의 언어도 포함시키는 일반언어학이론이라고 스스로 규정한 것에 대해 식민지에서 이제 막 독립한 인도-유럽어족이 아닌 민족들이 어느 정도 매력을 느꼈음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이 시기 김수경이 소비에트 언어학 주류파의 테제를 100% 받아들였다고는 하기 힘들다. 우선 김수경이 마르를 직접 인용한 논문은 직접 확인한 범위 내에는 김두봉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쓴 강연원고밖에 없다.<sup>134)</sup> 게다가 글자 표기의 형태주의 사상(후술)을 논한 문맥에서 “언어는 단순한 음향이 아니라 동시에 사유”라고 하는, 굳이 마르의 이론을 빌리지 않아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을 인용한 정도이다. 사적 유물론의 틀은 논문 ②에서 원용했지만 훈민정음 창제의 역사적 배경으로 생산력의 발전과 봉건적 가족 형태의 정비에 있었다는 것, 훈민정음이 순수하게 조선어 표기만이 아니라 한자음의 교정을 위해서도 만들어졌다는 점에서는 지배계급의 계급적 제약성을 지닌다고 하는, 이른바 문자의 사회성이라는 온당한 범위를 적용하기에 그쳤다. 그리고 김수경이 번역한 레포르마츠키(A.A. Reformatskiĭ)의 교과서 『언어학』(원저는 1947년, 번역은 1949년 간행)<sup>135)</sup>은 서론에서는 신언어이론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어휘론, 어음론, 문법론, 문자론과 문법이론을 논한 후 마지막 즈음에 “세계의 언어와 그 분류”에서 간단히 야페트 이론을 소개하는 정도이다. 레포르마츠키는 모스크바 음운론학파의 창시자 중 한 사람으로 마르 학파와는 일정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었다고 한다.<sup>136)</sup> 김수경이 소련 내의 이러한 입장 차까지 잘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그가 마르의 언어이론을 무조건 받아들이지는 않았음은 알 수 있다.

구조언어학과의 관계에서도 소비에트 언어학의 견해에 찬동했는지는 의문이다. 소비



에트 언어학에서는 공시적 언어학을 중시하는 소쉬르의 언어이론과 구조언어학을, 언어 발전의 법칙이 없는 비역사적, 반사회적 부르주아언어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한 견해를 번역하여 소개한 것은 다름 아닌 김수경 자신이었다.<sup>137)</sup> 그러나 소쉬르는 공시적 언어학과 통시적 언어학(역사언어학)을 준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각 시대의 언어 체계에서 부분적 요소만을 떼어내어 그 역사적 지속성과 변화를 논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방법을 비판한 것이지, 역사적 변화라는 관점을 버린 것은 아니었다.

소쉬르에 정통했던 김수경이 소비에트 언어학에서 하는 비판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확실한 것은 앞 논문 ①~③ 모두 소쉬르의 공시적 언어학의 기본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논문 ①, ②에서는 언어는 차이의 체계라고 하는 소쉬르의 기본 테제를 제시하고 있다.

①言語는 한개의 價値이며 그러므로 마치 貨幣價値가 貨幣體系와의 關聯 밑에서만 비로소 理解되듯이 言語價値도 언어體系안에서만 理解될수 있는것이다. ([三], 1947년 6월8일)

② [...] 音韻은 示差的要素이기 때문에 (마치 貨幣價値와 같이) 同一體系中の 다른 音韻과의 關係에 依據하지 않고서 이를 定義할수 없다. 即 音韻은 音韻體系를 떠나서 存在할수는 없다. (151쪽)

두 논문 모두 언어를 화폐와 대치시켜 논하고 있으며 마르크스의 자본론과도 연결될 수 있도록 쓰여 있지만 실은 이것도 이미 소쉬르가 음운론과 관련하여 언어가치를 설명할 때 제시했던 비유였다.<sup>138)</sup> 논문 ③은 전체가 음운론적 사고방식에 근거한 연구인데 논문의 기본 틀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통합(syntagme)’이라는 소쉬르의 공시적 언어학의 중요 개념을 인용하고 있다. 심지어 이것을 앞서 얘기한 레포르마트스키의 저서와 마르크의 수제자인 메시차니노프(I. I. Meshchaninov)의 저서(1945년)<sup>139)</sup>에서 논한 문법론과 연결지며 오구라 신페이와 최현배 등의 견해를 물리쳤다(19-22쪽).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시기의 김수경은 구조언어학과 소비에트 언어학의 결합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역사언어학과 관련시켜 검토해 보자. 김수경은 월북 후 현대조선어 연구에 매진하게 되면서 조선어사에 관한 전문적 논문은 1940년대의 논문 ②·③과 1980~90년대의 만년의 저작으로 한정된다.<sup>140)</sup> 이유는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첫째로 이미 말했듯이 1940년대에는 규장각 자료를 이용한 1945년 이전의 연구 축적이 아직 존재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논문 ③의 원형이 되는 논문을 1945년 11월에 탈고한 상태였다.<sup>141)</sup> 논문②에서도 경성대학에 소장되어 있던 훈민정음 텍스트를 참조했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둘째로 조선어사에 관한 사료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북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료가 한정적이어서 월북 후에는 새로운 실증적 연구를 하기 어려웠다고 여겨지는 점을 들 수 있다. 김수경은 고바야시에게 보낸 서한(1957년)에서 “저희들이 주로 어려운 점은 도서 자료의 결핍입니다”라고 하며 월북 때 도서를 챙겨 가지 못했던 점, 모아둔 서적들도 한국전쟁 때 타버려서 “중이 한 장도 전쟁 전의 것은 남아” 있지 않은 점, 정전 후 소련과 중국의 문헌은 쉽게 구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는 어려운 점 등을 들며 오구라 신포이와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의 구 서적 등을 보내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셋째로는 새로운 민족문화 수립이라는 지상명제 아래 조선어문의 규범 정비와 조선어사전 편찬 등 기초사업이 중심 과제였다는 이유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표된 논문 ②·③은 모두 15세기 중엽의 훈민정음 창제기의 언어와 문자를 다루고 있다. 논문 ②는 훈민정음의 성립연대와 원본을 확정한 후 문자가 만들어진 원리, 당시의 몽골문자와 중국음운학에 대한 지식, 문자창제의 음운론적 의의, 그리고 그 사회적 의의 등, 동시대의 횡단면이라고도 볼릴 만한 상황을 연출해 냈다. 한편 논문 ③은 1445년에 성립된 텍스트 『용비어천가』에 낱말과 낱말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한글(삽입자음)의 기능을 음운체계의 분석으로 밝혀낸 것이다. 이 두 논문을 함께 보면 15세기 중엽의 조선어 언어체계를 언어 바깥의 사회적 배경을 포함해 논한 공시적 언어학이라 볼릴 만한 논리를 구축하고자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김수경이 이러한 15세기 언어체계에 대한 연구를 현대와 떼어놓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아니 오히려 20세기 중엽 현대의 언어정책과 적극적으로 연관시키며 조선어사를 논했다. 논문 ②에서는 훈민정음에 잠재되어 있는 체계성, 과학성, 대중성에도 불구하고 널리 보급되지 못했던 배경으로 당시의 계급성과 시대성이라는 제약을 지적하고 있다. 그 후 일제의 탄압 등을 거치면서도 보존되어 온 것은 압박받은 인민의 힘 덕분이라 하면서 “大衆性和 科學性を 지닌 訓民正音を 人民의 文字로서 가장 힘차게 發展시킬수 있는” 것은 “北朝鮮과 같은 人民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文化建設의 나라”라는 신념을 제기하고 있다 (155-156쪽). 때마침 한글을 널리 보급하기 위한 ‘문맹퇴치’ 운동이 한창이었을 때 쓴 논문으로 조선어사가 언어 바깥의 사회적 조건을 매개로 현대에 잇닿아 있다.

논문 ③은 「특히 문제의 현실성에 비추어」라는 부제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당시 때마침 만들어졌던 ‘조선어 신철자법’의 ‘이론적 근거탐구’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

다. 논문에서 소개했듯이 1948년에 조선어문연구회가 공표한 조선어 신철자법 시안에는 낱말과 낱말을 연결할 때 ‘ㅅ’ 자를 삽입하는 사이음(사이시옷)을 폐지하고 대신 중간에 아포스트로피(apostrophe)를 삽입하기로 했다(예 : “뒛간”→“뒛’간”). 이 논문에서는 훈민정음을 창제했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당초 다양하게 표기되었던 삽입자음이 문법적 기능을 가진 조사가 아니라 두 낱말을 합성할 때 ‘어음론적 사실’(동화작용의 방지)을 보여줄 뿐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그 후 현대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단순화되는 변화의 ‘필연성’을 밝혀내고 그 연장선상에 현대의 신철자법을 자리매김했다. 신철자법에서 아포스트로피는 ‘절음부(絶音符)’라고 불렸는데 본 논문의 취지와 일치하는 용어이다. 그 후 1960년대까지 사용되었던 이 부호(符號)가 도입될 당시 김수경 언어학이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sup>142)</sup>

당의 기관지(노동신문)에 게재된 언어정책의 논설이라고도 할 수 있는 논문 ①에서도 언어학 이론은 물론 비교언어학과 역사언어학의 축적이 활용되었다. 여기에서의 논점은 같은 한자는 같은 형태로 일관성 있게 표기할지(형태주의), 발음에 맞춰서 바꿀지(표음주의)에 관한 것이다. 조선어에는 단어 첫 음절에 자음인 ㄹ이 왔을 경우 그 자음이 빠지고 ㄴ으로 바뀌는 등의 두음법칙이 있다. 그 결과 예를 들어 ‘로(勞)’라는 한자는 단어 도중에 쓰이는 경우에는 ‘과로(過勞)’가 되지만 첫 음절에 쓰일 경우에는 ‘노동(勞働)’으로 발음한다(당시에는 북조선에서도 이렇게 발음했다). 발음에 맞춰서 ‘노동’이라고 쓸지(표음주의), 표기 형태의 일관성을 중시하여 ‘로동’이라 쓸지(형태주의)라는 물음에 대해 당시 한자사용철폐를 검토하고 있던 북조선에서는 같은 한자는 항상 같은 한글로 표기한다는 후자를 선택했다. 그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 논문 ①이다. 이데올로기 비판이라기보다는 이론 및 역사적 관점에서 쓰인 논문이다.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지만, 조선시대 지식인들이 한글을 표음문자로 과잉평가했던 것을 비판하거나 프랑스어의 ‘oi’ 표기 발음의 역사적 변화를 예로 들거나 음운론을 설명할 때 러시아어와 조선어의 차이를 논하거나 400년 이상 지속된 훈민정음의 학습법에서 두음의 ‘ㄹ’을 발음해 왔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등 비교언어학, 역사언어학 지식이 활용되었다.

북조선에서는 단기간에 조선어의 세로쓰기를 가로쓰기로 바꾸고 한자를 철폐하고 나아가 새로운 문자까지 만들어낸, 조선어의 혁명이라고도 할 만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 사업에 깊이 관여했던 김수경은 언어학의 지식이 학문 내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현장을 함께 했다. 일반적으로는 사회주의에서 ‘과학적’이어야 한다는 강한 지향성이 그 배경에 있었지만 조선어학에 관해 말하자면 언어학자였던 김두봉이 정치의 수뇌 자리에 있었던 영향이 컸다. 김수경은 형태주의 표기법 사상에 대해 조선어학

자 주시경이 씨를 뿌리고 그 제자 김두봉이 계승, 발전시킨 것으로 계보를 정리했다.<sup>143)</sup> 한 단계 더 나아가 말하자면 김수경이 그것을 이론적으로 발전시켜 실제의 표기로 구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sup>144)</sup> 이러한 학문과 정치의 밀월관계가 그 후 김수경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지는 이때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다.

## 맺 음 말

당초 본 논문은 오구라 신페이, 고노 로쿠로 등 일본인 학자와 조선어학과의 관계 속에 김수경의 연구를 자리매김하고자 했다. 하지만 실제 자료를 들여다보며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조선어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혹은 그것을 극복했다, 이러한 틀로는 김수경의 언어학을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 오래지 않아 깨달았다. 고바야시 히데오의 지도를 받으면서도 유럽 언어학을 제대로 배운 김수경은 보기 드문 어학 능력을 살려 서적을 통해 세계 각국의 언어와 언어학을 직접 배워 익혔다. 김수경은 이러한 구미의 언어 연구와도 대화가 가능한 일반언어학 이론과 철학의 토대 위에 조선어학을 구축하려는 뜻을 일찍부터 품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동경제대 대학원에 진학하여 오구라 신페이의 지도 아래 본격적으로 조선어학을 공부했을 때에도 일반이론 특히 구조언어학에 대한 관심을 계속 지니고 있었다. 한편 경성제대로 이관된 규장각 도서를 비롯한 조선어사 자료도 많이 접했는데 이것이 김수경에게 문헌학적 축적을 안겨 주었다.

해방 후 이러한 김수경 언어학은 한꺼번에 꽃을 피우게 된다. 월북 후에는 조선어사 자료가 부족하기도 해서 새로운 조선어사의 조사연구는 힘들어졌지만 대신 현대조선어의 규범을 만들어내기 위한 규범문법을 적극적으로 다루게 되었다. 일반이론의 틀은 소비에트 언어학으로 전환되어 갔지만 마르 언어학의 틀을 적극적으로 번역, 소개하면서도 그 중심인 아페트 이론에 의거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구조언어학적 사고방식과 소비에트 언어학과의 결함을 모색하는 모습도 보인다. 이렇듯 언어학 이론, 역사언어학, 규범문법이 어우러진 김수경의 조선어학이 눈 앞에 펼쳐진다.

이러한 스케일을 지닌 김수경의 연구에서 적어도 본 논문에서 다룬 시기에는 일본인 연구자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해방 전 『老乞大諺解』의 판본 연구에서는 사료적으로 스에마쓰 야스카즈의 잘못을 정정했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오구라 신페이의 주요 논저 『朝鮮語学史』(초판 1920년, 증정판 1940년)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게 되었지만<sup>145)</sup> 이러한 내용을 본인이 밝히지는 않았다. 월북 후의 논문에서도 삽입 자음의 해석에 대해 오구라 신페이의 견해를 다른 연구와 함께 비판했고(앞 서술), 훈민

정음 성립시기를 둘러싸고 홍기문(洪起文)과 함께 고노 로쿠고의 논문을 참조는 했지만 (논문② 138쪽) 그 논문을 계승했다거나 극복했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다.

오히려 일본과의 관계를 말하자면 무엇보다 본 논문에서 다루었던 식민지화와 전쟁, 그리고 해방이라는 커다란 상황과 그 속에서의 경험이 김수경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해야 할 것이다. 1946년에 서울에서 출판된 쿠랑의 번역 후기에서는 “朝鮮의 解放을 爲하여 싸워온 革命鬪士”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월북 후에 쓴 논문①(연재 제 1회)에서는 조선어학회의 철자법(1933년) 가운데 “몇가지 不充分한 點을 發見하고 이에 對하여 獨自의 見解를 가지고 있었으나 日帝의 野蠻의 文化政策下에 있어 우리 陣營內部的 統一에 無用한 混亂을 가져옴을 두려워하여 沈默을 지켜왔던 것이다.”라고 했다. 논문 ②에서도 한글이 충분히 보급되지 않았던 요인으로 ‘일제의 탄압’을 들었다. 조선어학자로 김두봉을 기린 문장에서도 우선 첫머리부터 “조국의 독립과 민족, 해방을 위하여 불요불굴의 투지로서 싸우셨”던 것에 대해 찬사를 보냈다.<sup>146)</sup> 조선어 연구자와 경성제대의 동기생들이 잇달아 체포되고 일본식으로 이름 바꾸기를 강요당하고 학도출진의 압력이 더해 가고 “국어 상용”이라는 슬로건 아래 조선어의 영역이 점점 축소되어 가는 가운데 간신히 조선어 연구를 계속해 온 김수경에게 일본제국주의는 말 그대로 ‘야만’적 존재였으며 또한 민족해방을 위해 싸운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과 인식은 그 후 김수경의 언어관과 민족관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바로 이것이 ‘김수경의 조선어 연구에 일본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현 단계에서의 해답이 되리라 생각한다.

감사의 말: 본 논문의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김수경 및 고바야시 히데오의 유족분들 외에 많은 분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이하 그분들의 이름을 명기하겠다(일본어 50음순, 존칭 생략). 이상록(李相祿), 오카모토 마키코(岡本真希子), 간노 히로오미, 김창록(金昌祿), 구마타니 아키야스(熊谷明泰), 고영진, 쓰도 아유미(通堂あゆみ), 박한용(朴漢龍), 하시모토 시게루(橋本繁), 후쿠이 레(福井玲), 홍종욱(洪宗郁), 미즈노 나오키(水野直樹).

(배영미 역)

## 주

- 1) 리규춘 『장편실화 삶의 메부리』(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96년, 10, 18쪽). 리규춘은 이 소설 외에 김수경의 경성제대 동기였던 역사학자 김석형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 『장편실화 신념과 인간』(평양: 금성청년종합출판사, 2001년)도 저술했다. 김석형은 1996년에 사망했

으므로 사후 출판이다.

- 2) 최경봉 「金壽卿의 국어학 연구와 그 의의」(『한국어학』 45호, 2009년).
- 3) 이력정보는 『辯護士認可ニ關スル書類』(朝鮮總督府法務局庶務係, 1936년, 국가기록원문서, 관리번호CJA0004097)에 들어 있는 「辯護士名簿登録換認可ニ關スル件 金瑄得」(1936년)을 참조했다.
- 4) 「京城專修學校規程」(『朝鮮總督府官報』 1911년 10월 20일 호외).
- 5) 『朝鮮總督府官報』 1918년 10월 25일. 임용 날짜는 10월 23일이다. 그리고 아래 문헌도 참조. 『(大正八年一月一日現在)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朝鮮總督府, 1919년, 134쪽).
- 6) 『毎日申報』 1921년 6월 3일, 6월 23일.
- 7) 조선총독부 판사임명은 『朝鮮總督府官報』(1921년 10월 3일), 군산에서의 임용은 『(大正十一年)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1922년, 156쪽)을 참조. 당시 조선인이 판사가 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나누어 (1) 일반임용, (2) 특별임용이 있었다. (1) 일반임용은 관검사 등용시험을 보는데 일본에서도 조선에서도 통용되는 판사자격이었다. 한편 (2) 특별임용은 조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조선에서만 통용되었다. 그리고 (2-a) 1910년 제령 제 7호에 근거하여 정해진 학교에서 3학년 이상 배우고 ‘문관고등시험위원의 전형’을 거쳐 판사가 되는 제도와 (2-b) 1920년 제령 제11호에 근거해 5년 이상 관입관 이상직을 재직하고 사법사무에 종사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별시험을 통해 판사가 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 (김병화 『韓國司法史(近世編)』 일조각, 정정초판1979년, 90-97쪽). 김선득의 경우는 아직 관직에 있었던 기간이 5년에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2-a)의 케이스라 생각된다.
- 8) 최시흥에 대해서는 『東亞日報』(1924년 7월 21, 30일), 양승우에 대해서는 『東亞日報』(1924년 8월 10일)를 참조.
- 9) 군산노동연맹에 대해서는 『東亞日報』(1926년 1월 14일), 문우회에 대해서는 『東亞日報』(1926년 1월 19일, 3월 3일), 유아원에 대해서는 『東亞日報』(1927년 3월 3일, 1928년 3월 24일)를 참조.
- 10) 김제군 공덕청년회 변호에 대해서는 『東亞日報』(1927년 6월 14일), 이리사건 변호에 대해서는 『東亞日報』(1928년 2월 12일)를 참조.
- 11) 예를 들어 『開港三十周年記念 群山』(1928년)이라는 책자 말미에는 46명의 저명인물이 소개되어 있는데 김선득은 그곳에 수록된 유일한 조선인이었다.
- 12) 앞서 인용한 변호사 인가 서류 및 유족 증언에 의함.
- 13)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에는 적어도 1935년판부터 1942년판까지의 동선의 기록이 남아 있다.
- 14) 연수입에 대한 정보는 앞서 인용한 변호사 인가 서류에 의함.
- 15) 금주학원(대동학원)에 대해서는 『東亞日報』(1932년 2월 25일, 1933년 7월 16일, 1935년 4월 10일, 4월 24일)에서 상세히 알 수 있다.
- 16) 통천상공협회에 대해서는 『全鮮商工團體現勢調査』(朝鮮商工会議所, 1939년, 113-114쪽), 통천어업조합에 대해서는 『朝鮮總督府官報』(1940년 7월 17일, 1944년 3월 30일, 1944년 기사에는 창씨개명 후 이름인 山川淸光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東亞日報』(1936

년 5월 10일) 기사 「法曹界の明星」에 ‘통천의 대표적 인물’로 사진까지 함께 소개되어 있다.

- 17) 『中外日報』 1928년 2월 28일, 『東亞日報』 1928년 3년 1일.
- 18) 『東亞日報』 1930년 2월 10일.
- 19) 『每日申報』 1930년 3월 5일.
- 20) 『全羅北道要覽』(全羅北道)의 1931년 8월판 10쪽, 1933년 8월판 68쪽.
- 21) 1933년 3월 4일자에 ‘송별기념’이라는 제목이 붙은 사진에는 3학년의 김수경을 포함한 17명의 남학생들이 찍혀 있다. 뒷면에 기입된 이름을 보면 모두 조선인인데 학년은 1~5학년까지 다양하다. 그리고 1934년 3월 4일자 사진에도 20명의 남학생이 찍혀 있는데 뒷면 정보는 같다.
- 22) 『京城帝國大學創立五十周年記念誌 紺碧遙かに』京城帝國大學同窓會, 1974년, 23-28쪽.
- 23) 『朝鮮總督府官報』 1934년 3월 30일.
- 24) 小林英夫 「教え子」(『小林英夫著作集 第10巻 随想』みすず書房, 1977년, 347쪽; 원저는 1951년).
- 25) 小林·앞 글 「教え子」 346-347쪽.
- 26) 安倍能成 『我が生ひ立ち』岩波書店, 1966년, 557쪽.
- 27) 小林·앞 글 「教え子」 347쪽.
- 28) 『京城帝國大學一覽 昭和十二年』 1937년, 72-75·83-85쪽.
- 29) 小林·앞 글 「教え子」 347쪽.
- 30) 앞 책 『京城帝國大學一覽』. 그리고 유족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 중에 “1938.3.7 昭和十二年度哲學專攻生卒業 送別紀念”이라는 사진이 있다. 이 사진에는 교원으로 아베 요시시게, 미야모토 와키치, 다나베 주조, 고헌곤 외에 졸업생으로 마스나카 겐키와 이본녕(李本寧, 선과 수료), 대학원생으로 손명현(孫明鉉, 와세다대학 졸업, 그리스철학연구)과 아리가 후미오(有賀文夫, 경성제대 졸업, 초월론 연구), 1936년에 졸업한 박의현(朴義鉉), 그리고 김수경, 정해진, 김홍길이 찍혀 있다.
- 31) 宮本和吉 「京城大學」 『文藝春秋』 1951년 1월. 단 미야모토는 조선인 학생에 대해 성적은 좋지만 졸업 연구에 대해서는 창조성이 없다는 등 낮게 평가하고 있다.
- 32) 『東京大學百年史 部局史一』 東京大學, 1986년, 692쪽.
- 33) 李忠雨 『京城帝國大學』 多樂園, 1980년, 228-229쪽. 정보 출처는 불분명하지만 이종원(李鍾原), 차락훈(車洛勳), 김석형, 김홍길, 김수경, 정해진, 신구현, 이명선 등이 참가했다고 한다. 조선어학회가 『한글맞춤법통일안』을 간행한 것은 1933년이였다. 또한 『삶의 배부리』(20-21쪽)에도 경성제대 시절에 이극로를 찾아갔다고 쓰여 있다.
- 34) 모리스·쿠랑 『朝鮮文化史序說』(金壽卿訳, 凡章閣, 1946년, 190쪽).
- 35) 『朝鮮總督府官報』 1940년 4월 9일. 유족이 소장하고 있는 법문학부 졸업식 사진(1940년 3월 25일)에서는 키가 큰 김수경이 학생모자를 쓰지 않고 학생들의 제일 앞줄 한가운데에서 있기 때문에 눈에 잘 띈다.
- 36) 동경대학 문학부 소장 학적부에 의함. 주소는 “杉並区高円寺五丁目八十五ノ三 荻原方”였

- 다. 고엔지에서 대학이 있는 혼고(本郷)까지는 먼데 왜 그곳에서 살았는지는 알 수 없다.
- 37) 「學位令」(1920년 칙령 제200호) 및 「東京帝國大學學位規則」(1921년)에 의함(『東京帝國大學一覽 昭和十五年度』101-109쪽).
- 38) 「學部通則」(앞 책 『東京帝國大學一覽 昭和十五年度』150-153쪽).
- 39) 동경대학 문학부 소장 대학원연구생연구보고제출부에 의함. 아쉽게도 보고서 자체는 보관되어 있지 않다.
- 40) 앞 책 『東京大学百年史 部局史一』692-695쪽.
- 41) 앞 책 『東京帝國大學一覽 昭和十五年度』부록.
- 42) 앞 책 『東京帝國大學一覽 昭和十五年度』492-496쪽.
- 43) 이회승의 자서전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도서출판 선영사, 2001년, 134-136쪽).
- 44) 앞서 인용한 동경대학 학적부에는 “豊島区要町三丁目十一ノ一”이라 되어 있다.
- 45) 이 즈음의 학사력은 전시체제가었기 때문에 상당히 변칙적이었다. 1942년도가 4~9월의 반년 만에 끝나면서 학년이 어긋나기 시작했다. 1942년에는 여름방학이 폐지되고 1943년에는 7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한 달 이내에 학부별로 쉬게 되어 있었다(앞 책 『東京大学百年史 部局史一』441-442쪽).
- 46) 앞 인용·동경대학 학적부.
- 47) 김수경이 김일성대학 문학부에 제출한 자필이력서(No.13, 1946년 12월 28일자)에 의함. 이 서류는 미국이 한국전쟁 때 북조선에서 모은 이른바 “鹵獲文書”에 포함되어 있다(『金大教員履歷書 文学部』, 미국국립문서서관RG#242, 2005 1/31에 수록). 이하 ‘김대이력서’라 약칭하겠다. 유족에 따르면 부속도서관 축탁도 검토했다고 한다.
- 48) 간노 히로오미의 자서전 「菅野裕臣のAütobiografio」의 「II」大学-大学院( <http://www.han-lab.gr.jp/~kanno/cgi-bin/hr.cgi?autobio/autobio-2.html>)에 의함.
- 49) 조선인 학도출진에 대해서는 姜徳相 『朝鮮人学徒出陣：もう一つのわたつみのこえ』(岩波書店, 1997년, 인용한 곳은 60-61쪽)를 참조하기 바란다.
- 50) 「昭和十八年十二月三十一日現在本学学生生徒在籍者数調」(東京大学史史料室編 『東京大学の学徒動員·学徒出陣』東京大学出版会, 1998년, 430-431쪽에 수록).
- 51) 김수경의 아버지 김선득은 1940년 8월에 이미 “야마카와 기요미쓰(山川清光)”로 창씨개명했다(『朝鮮總督府官報』1940년 10월 3일). 호주인 김선득의 창씨에 의해 그 때 김수경의 성도 야마카와(山川)로 바뀌었을 것이다. 그런데 동경제대 문학부에 새로운 성명을 보고한 것은 1943년 3월 1일이니(학적부에 의함) 적어도 그때까지는 김수경으로 통했던 모양이다. ‘야마카와’는 군산의 “山”과 통천의 “川”에서 딴 것으로 “철(哲)”은 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붙였다고 한다(小林英夫·앞 글 「教え子」345-346쪽, 단 고바야시는 “통천(通川)”을 “단천(端川)”으로 잘못 기억하고 있다).
- 52) 『「老乞大」諸板の再吟味』奎章閣叢書第九老乞大諺解別冊附錄, 京城帝國大學法文學部, 1945년 3월.
- 53) 이 무렵 서울에서 고노 로쿠로와 함께 잡지를 간행했다는 정보도 있다(앞 웹사이트 「菅野裕臣のAütobiografio」).



- 54) 小林英夫·앞 글 「教之子」 348쪽.
- 55) 구제 중학교에서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가 외국어 과목으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중학교 규정), 김수경의 군산중학교의 통지표(1933년도)에는 영어 과목만 기입되어 있다.
- 56) 金壽卿 「英語研究會」 (『學友會報 昭和十一年度』 京城帝國大學豫科學友會文藝部, 1937년). 유족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 뒷면에는 “英語研究会 送別記念 於 金閣園 1937.2.20”라고 쓰여 있다. 쓰여 있는 이름으로 사진 속의 인물을 특정지어보면 우메다 기이치(예과 영어 교수), 고다마 사이조(예과 영어 교수), 히케타 구니타케(桶下田國威, 문과 3학년 갑조), 정해진(문과 3학년 갑조), 가네마루 미쓰토미(金丸光富, 문과 2학년 갑조), 다카타니 히사노리(高谷久則, 문과1학년 갑조)이다.
- 57) “Russian”이라고 쓰인 1938년 2월 15일자 사진을 유족들이 보관하고 있다. 치르킨을 네 명의 학생이 둘러싸고 교실에서 찍은 사진인데 김수경은 보이지 않는 점으로 보아 사진을 찍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학생들은 배호(裴濤, 중문), 이석근(李碩崑, 영문), 정해진(철학), 엄용구(龐裕九, 영문)이다. 동기인 정해진을 제외한 세 명은 예과의 1년 선배들이다.
- 58) 치르킨의 회상록 원고가 최근에 러시아에서 출판되었는데 외교관 시절의 내용이 대부분이라 1920년대 이후의 기록은 거의 없다. С. В. Чиркин, *Двадцать лет службы на Востоке: Записки царского дипломата*, Русский путь, 2006.
- 59) 李忠雨·앞 책 『京城帝國大學』 218쪽.
- 60) 小林·앞 글 「教之子」 348쪽. 고바야시도 “나는 속으로 그의 끝을 모르는 어학력에 혀를 내둘렀다.”라고 기록했다.
- 61) 훗날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가 되는 김방한(金芳漢)이 배웠다고 한다(앞 웹사이트 「菅野裕臣のAutobiografie」).
- 62) 앞 웹사이트 「菅野裕臣のAutobiografie」.
- 63) 앞 책 『삶의 메부리』 19쪽.
- 64) 아베 요시시게·앞 책 『我が生ひ立ち』 555쪽. 특별히 거론한 이름은 박치우(朴致祐, 1933년 졸업), 신남철(申南澈, 1931년 졸업)이다.
- 65) 李忠雨·앞 책 『京城帝國大學』 218쪽.
- 66) 小林·앞 글 「教之子」 348쪽.
- 67) 李忠雨·앞 책 『京城帝國大學』 180쪽.
- 68) 李忠雨·앞 책 『京城帝國大學』 124쪽.
- 69) 앞 책 『金大教員履歷書 文学部』에 수록되어 있는 신구현 이력서(No.1, 날짜 기입 없음).
- 70) 앞 책 『金大教員履歷書 文学部』에 수록되어 있는 박시형 이력서(No.23, 날짜 기입 없음), 김석형 이력서(No.24, 날짜 기입 없음).
- 71) 김일수 「역사가 金錫亨의 역사학」 『역사와 경제』 54, 2005년, 40쪽. 또한 앞서 인용한 소설 『신념과 인간』에는 김석형이 서울에서 비밀리에 조직된 무장봉기 준비결사에 관여했다고 쓰여 있다.
- 72) 정근식 「‘탈냉전·분단’시대의 가족사 쓰기: 이산복합가족의 경험을 중심으로」 (<호남지역

사와 문화연구> 심포지움 발제문, 2012년 8월 23일, 보성문화원, 11쪽).

- 73) 앞 책 『朝鮮文化史序說』 191쪽.
- 74) 小林·앞 글 「教え子」 349쪽.
- 75) 언어학사에는 여러 저술이 있지만 본 논문과의 관계로 말하자면 미르카 이비치(Milka Ivic) 『言語学の流れ』(早田輝洋·井上史雄訳, みすず書房, 1974년)가 소련 등 슬라브어권의 동향도 포함한 조류를 폭넓게 그리고 요령있게 정리해 놓아 유익하다.
- 76) 「譯者の序」(페르디낭 드 소쉬르 『言語學原論 (改譯新版)』 小林英夫訳, 岩波書店, 1940년, 9쪽). 이 서문은 1939년 10월에 서울에서 썼다.
- 77) 金壽卿 「龍飛御天歌에 보이는 挿入字母의 本質: 特히 問題의 現實性에 비추어」 『조선어 연구』 1-2, 1949년, 38쪽.
- 78) 「小林英夫著作目錄」 『小林英夫著作集 10』에 의함.
- 79) 「研究室通信」(京城帝國大學法文學部 『學叢』 第1輯, 1943년, 118쪽). 철학담화회는 1933년부터 시작되었는데 대학원생, 조수, 졸업생 등이 발표하고 교수진이나 재학생이 참가하는 형태였던 것 같다. 김수경이 발표했을 때에는 철학과의 미야모토 와키치, 다나베 주조 외 고바야시 히데오도 참석했다.
- 80) Karl-Friedrich Kiesow, “Marty on form and content in language”, in Mulligan ed., *Mind, Meaning and Metaphysics: The Philosophy and Theory of Language of Anton Marty*, Kluwer, 1990.
- 81) Oldřich Leška, “Anton Marty's philosophy of language”, Eva Hajičová et al. eds, *Prague Linguistic Circle papers*, Vol.4, 2002, p.84.
- 82) 그때도 지금도 마르티의 저서의 일본어 번역본은 없다. 당시의 유일한 개설적 저작으로 小林智賀平 『マルティの言語學』(興文社, 1937년)이 있다.
- 83) 金壽卿·앞 글 「龍飛御天歌에 보이는 挿入字母의 本質」 외 「訓民正音成立史考」(金日成綜合大學歷史文學部 『歷史·文學研究論文集』 金日成綜合大學編輯部, 1949년)에도 음운론적 사고방식이 확실히 제시되어 있다.
- 84) 1920-30년대 프라하학파의 음운론에 대해서는 트루베즈코이 『音韻論の原理』(長嶋善郎訳, 岩波書店, 1980년), 야콥슨 『構造的音韻論』(矢野通生外訳, 岩波書店, 1996년)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 85) 小林·앞 글 「教え子」 347쪽. 그 외에도 둘이서 모노그래피를 많이 읽었다고 적혀 있다.
- 86) 金壽卿·앞 논문 「龍飛御天歌」 挿入子音考」 132쪽.
- 87) 李崇寧 「나의 研究生活」(『나의 걸어온 길: 學術院 元老會員 回顧錄』 대한민국 학술원, 1983년, 449쪽).
- 88) 앞 책 『朝鮮文化史序說』 191쪽. 쿠랑의 저작연보도 활용했다고 적혀 있다.
- 89) 『老乞大諺解』 奎章閣叢書第九, 京城帝國大學法文學部, 1944년.
- 90) 末松保和 「小引」, 앞 책 『「老乞大」 諸板의 再吟味』에 수록. 『末松保和朝鮮史著作集』 全6卷(吉川弘文館, 1995-97년)에는 1944년 영인본 해제는 수록되어 있는데 이 「小引」은 들어가 있지 않고 존재조차 언급되어 있지 않다. 또한 김수경에게서 『「老乞大」

諸板의 再吟味』를 받은 방중현이 남긴 「老乞大諺解」(『한글』 11-2, 1946년, 40-41쪽)에는 나이토 기치노스케의 역할이 언급되어 있지 않고 김수경이 스에마쓰의 잘못을 정정한 것처럼 적혀 있다. 실제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부기해 둔다.

- 91) 方鍾鉉·앞 논문 「老乞大諺解」 40쪽.
- 92) 安秉禧 「老乞大와 그 諺解書의 異本」 『人文論叢』 35, 1996년, 1쪽.
- 93) 이기문은 『16세기 국어의 연구』(탑출판사, 1982년, 2쪽; 첫 출판은 1959년)에서 “근래에 들어서도 [조선어사의] 대표적 문헌이라도 이용하는 것은 특혜에 속하는 일이었다.”라고 적었다.
- 94) 森田芳夫 『朝鮮終戰の記録』 巖南堂書店, 1964년, 401-404쪽.
- 95) 앞 문서·김대 이력서.
- 96) 姜明淑 『美軍政期 高等教育 研究』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년, 28-35쪽.
- 97) 俞鎭午 「片片夜話(63) 京城大學 總長」 『東亞日報』 1974년 5월 14일.
- 98) 俞鎭午 「片片夜話」(64)·(65), 『東亞日報』 1974년 5월 15일, 5월 16일.
- 99) 小林·앞 글 「教生子」 346쪽.
- 100) 미군정청 “History of Bureau of Education from 11 September 1945 to 28 February 1946” (정태수 편저 『美軍政期 韓國教育史資料集(上) (1945-1948)』 홍문원, 1992년, 98-101, 108-109쪽).
- 101) 앞 문서·김대 이력서. 또한 경성대학 법문학부가 수업을 재개한 것은 이듬해인 1946년 봄이었다.
- 102) 金載元 「光復에서 오늘까지」 『震檀學報』 57호, 1984년, 225쪽. 「彙報」 『震檀學報』 15호, 1947년, 151-153쪽.
- 103) 진단학회의 그 후의 분열(좌우대립, 친일파를 둘러싼 대립)에 대해서는 李崇寧·앞 책 「나의 研究生生活」 461-463쪽, 「震檀學會와 나」(『震檀學報』 57호, 1984년, 240-243쪽).
- 104) 앞 글 「彙報」 151-152쪽.
- 105) 정병준 『독도 1947: 전후 독도문제와 한·미·일 관계』 돌베개, 2010년, 115-130쪽.
- 106) 이상의 서술에 대해서는 『自由新聞』 1946년 2월 26일, 3월 20일, 3월 30일.
- 107) 앞 문서·김대 이력서. 교과목에 대해서는 「해방 이후 국어 정립을 위한 학술적·정책적 활동 양상: 김민수 구술」(2007년도 구술자료 수집사업 녹취록, 국사편찬위원회)에 수록된 김민수(金敏洙)의 회상에 의함.
- 108) 앞 문서·김대 이력서. 최경봉·앞 논문 「金壽卿의 국어학 연구와 그 의의」 364쪽. 경성사범 학교에서는 김민수 등, 경성대학 예과에서는 강길운(姜吉云), 남광우(南廣祐) 등이 배웠다고 한다.
- 109) 「北朝鮮綜合大學 創立準備委員會組織에 關한 件」(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결정 제21호, 1946년 5월 29일, 『北韓關係 資料集V』 國史編纂委員會, 1987년, 660-661쪽). 그리고 김일성종합대학의 성립사에 대해서는 김기섭 「김일성종합대학의 창설에 관한 일 연구」(『教育理論』 10-1, 1996년) 및 신호숙 『소련군정기 북한의 교육』(교육과학사, 2003년)을 참조하기 바란다.

- 110) 「北朝鮮綜合大學創立에 關한 件」(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결정 제40호, 1946년 7월 8일, 『北朝鮮法令集』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사법국, 1947년, 226-227쪽).
- 111) 『김일성종합대학 10년사』 김일성종합대학, 1956년, 21-22쪽.
- 112) 이 정보는 김일성종합대학의 철학교수로 훗날 탈북했다는 최광석(崔光石)의 수기 「北傀金日成大學」(『新東亞』 1968년 6월, 148쪽)에 의함.
- 113) 「平壤에 綜合大學: 9월 개교 목표로 사무에 착수」(『獨立新報』 7월 18일), 「平壤에 綜合大學 設置」(『朝鮮人民報』 7월 19일)[모두 李吉相·吳萬錫編 『韓國教育資料集成 美軍政期篇I』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7년, 93, 654-655쪽에 수록]. 김기섭·앞 논문 「김일성종합대학의 창설에 관한 일 연구」를 참조하기 바란다.
- 114) 김기섭은 앞 논문 「김일성종합대학의 창설에 관한 일 연구」(230-234쪽)에서 초기의 김일성대학 교수들의 공통점으로 (1)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은 저명한 학자 (2) 국내의 제국대학을 나온 동문으로 각각 독특한 학연으로 맺어진 인간관계를 유지 (3) 1945년 가을 이후 혁신정당에 가입하여 국내안반대운동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 것, 등 이 세 가지를 들었다.
- 115) 모두 앞 문서·김대 이력서에 의함.
- 116) 박시형 「조국력사연구의 보람찬 길에 세워주시여」 『은혜로운 사랑속에서(1)』 三學社, 1981년, 261쪽.
- 117) 앞 책 『삶의 메부리』 31-32쪽.
- 118) 앞 문서·김대 이력서.
- 119) 김수경이 평양에서 1957년 1월 27일 자로 고바야시 히데오에게 보낸 일본어 서한에 의함 (이하 「고바야시 서한」으로 약칭). 이 부분은 고바야시 히데오의 수필 「白いハト」(『PHP』 第110号, 『小林英夫著作集』 10에 수록, 363쪽)에도 인용되어 있는데 “形”을 “いでたち”로 고치는 등, 고바야시가 일본어로 더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해 조금 수정해 놓았다. 본 논문은 고바야시 히데오의 유족들의 배려로 열람할 수 있었던 서한 원문(일본어)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인용하였다. 그리고 원문은 일본어로 쓰여 있지만 조선어식으로 띄어쓰기가 되어 있고, 첨표와 마침표도 조선어식이었음을 덧붙여 둔다.
- 120) 유족들에 의함. 그리고 가족들이 평양에서 합류한 것은 그로부터 약 두 달 후였다.
- 121) 앞 문서·김대 이력서.
- 122) 앞 책 『김일성종합대학 10년사』 18-19, 23-27쪽.
- 123) 「教職員任命에 關한 件」(北朝鮮金日成大學總長金科奉→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教育庁, 1947년 1월자, NARA문서 RG #242, 2006 12/35). 이 서류에 따르면 김수경의 담당은 영어와 언어학이었다.
- 124) 「大學教員招聘依頼의 件」(『北朝大』 366號, 1947년 7월 19일, RG #242, 2006 12/35).
- 125) 앞 책 『김일성종합대학 10년사』 42-43쪽.
- 126) 앞 책 『김일성종합대학 10년사』 37쪽.
- 127) 앞 문서·김대 이력서.
- 128) 앞 책 『김일성종합대학 10년사』 37-38, 50-51쪽.

- 129) 「朝鮮語文研究에 關한 決定書」(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결정 제175호, 1947년 2월 3일, 앞 책 『北朝鮮法令集』 227-228쪽). 「조선어문연구회의 사업전망」(『조선어연구』 1-1, 1949년).
- 130) 「朝鮮語研究會에 關한 決定書」(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內閣決定第10號,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공보』 1948년 제1호, 2-3쪽).
- 131) 1949년의 문법책도 상당 부분 김수경이 집필했던 것 같다. 김수경은 고바야시에게 보낸 서한에서 “나는 주로 현대조선어의 문법체계수립이라는 방면에 전념하여 1949년에 400쪽(국판) 분량의 조선어문법책을 간행했고 1954년에는 중학교용 교과서를 집필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리고 유족에 따르면 1948년에 『조선어 문법(대학용)』이라는 저서를 이미 간행했다는 정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앞 책 『김일성종합대학 10년사』(57쪽)에는 1946~50년 사이의 시기에 “조선어문학부 조선어학 강좌 김수경 부교수는 “조선어문법연구”를 완성했는데 이는 선진적 언어학 이론에 바탕한 조선어문법을 체계화한 새로운 시도였다.”라고 적혀 있다. 그렇다면 조선어문연구회가 문법책을 간행하기 전에 대학강의용 문법책을 김수경이 정리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 132) 논문 ① 「朝鮮語學會 『한글 맞춤법 통일안』 中에서 改正할 몇가지 其一 漢字音表記에 있어서 頭音ㄴ及ㄹ에 對하여」(『勞働新聞』 1947.6.6, 6.7, 6.8, 6.10); 논문 ② 「訓民正音成立史考」(김일성종합대학 역사문학부 『歷史·文學研究論文集』 김일성종합대학 편집부, 1949년); 논문 ③ 「龍飛御天歌에 보이는 挿入 字母의 本質: 特히 問題의 現實性에 비추어」(『조선어연구』 1-2, 1949년).
- 133) 마르의 이론에 대해서는 아래 문헌을 참조하였다. Буйковскій(Bykovskii, S. N.) 『ソヴェート言語學』(高木弘編訳, 象徴社, 1946년), И. И. 쭈께르만(김수경 역) 「Н. Я. 마르와 쏘베트 언어학」(『조선어연구』 1-6, 1949년), 村山七郎 「ソヴィエト言語學とスターリンの批判」(『思想』 317, 1950.11), イヴァイチ·앞 책 『言語學の流れ』(72-76쪽), 田中克彦 『「スターリン言語學」精読』(岩波書店, 2000년).
- 134) 김수경 「조선어 학자로서의 김두봉 선생」 『조선어연구』 1-3, 1949년, 6쪽.
- 135) 아. 아. 레포르마트스키(김수경 역) 『대학용 언어학』(교육성, 1949년). 원저는 А. А. Реформатский, Введение в языкознание, Гос. учебно-педагогическое изд-во Министерства просвещения РСФСР, 1947.
- 136) 레포르마트스키는 종종 “나는 마르파도 반마르파도 아닌 비마르파였다”라고 말했다고 한다(B. M. Алпатов, История одного мифа: Марр и марризм, 2-е, УРСС, 2004, p.138). 레포르마트스키에 대해서는 Victor Vinogradov ed., Aleksandr Rerormatskij: Selected Writings, Moscow: Progeress Publishers, 1988.
- 137) 에스. 데. 까즈넬선(김수경 역) 「쏘베트 一般言語學三十年」(『조선어연구』 창간호, 1949년), Н. С. 체모다노프(김수경 역) 「구조주의와 쏘베트 언어학」(『조선어연구』 2-1, 1950년).
- 138) ソシュール·앞 책 『言語學原論(改譯新版)』 157쪽(II-4-3). 소쉬르가 화폐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丸山圭三郎 『ソシュールの思想』(岩波書店, 1981년, 209-225쪽)을 참조.

- 139) 水野義明 「構造主義の評価」(『明治大学教養論集』40, 1968년, 128쪽)에서는 이 저서에 대해 “마르 언어학의 사실상 사멸과 소비에트 구조주의의 탄생을 고한 것”이라 적었다. 비노그라도프(V. V. Vinogradov)는 메시차니노프의 입장에 대해 “마르 학설의 ‘창조적 발전’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그것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비교언어학도 아니고 마르 학설도 아닌 명료하지 않은 입장을 구축해 왔다”라고 평가한다(村山·앞 논문 「ソヴィエト言語学とスターリンの批判」 62쪽).
- 140) 논문 ②에서는 한글창제 이전에 한자의 발음을 표기하기 위해 사용해 왔던 시대에 대해 「訓民正音創制の 前段階에 對하여」(『民主朝鮮』1947년 10월 30-31일)라는 논문을 썼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아쉽게도 이 논문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1950-60년대의 수많은 저작 가운데 조선어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주시경의 조선어학에 대해 논한 「주시경선생의 생애와 학설: 선생의 서거 40주년에 제하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학보』1954년 No.5) 정도이다.
- 141) 金壽卿 「「龍飛御天歌」挿入子音考」(『震檀學報』15, 1947년)는 “「용비어천가」가 간행된지 500년이 되는 해”(131쪽), 즉 1945년 가을에 탈고했다.
- 142) 안병희(安秉禧) 「北韓의 맞춤법과 金料奉의 학설」 『정신문화연구』2001년 봄호, 113쪽. 1954년 이후에는 ‘사이표’로 불렸다.
- 143) 김수경·앞 논문 「조선어 학자로서의 김두봉 선생」 6-7쪽.
- 144) 이 형태주의를 보다 철저화시킨 것이 조선신철자법이고 제정 때 김수경은 중심 역할을 했다고 생각되나 본 논문에서는 생략한다.
- 145) 고노 로쿠로의 보주(補注) 판에 그 뜻이 적혀 있다. 小倉進平 『朝鮮語学史』河野六郎補注, 刀江書院, 1964년, 보주 172쪽, 단 고노가 김수경 논문을 틀림없이 읽었을 텐데 보주에서 해당 문헌을 언급하지 않았다.
- 146) 김수경·앞 논문 「조선어 학자로서의 김두봉 선생」 2쪽.